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제1531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업무정지’ 위기 맞은 딜로이트안진

‘대우조선 분식회계’ 前 이사 구속 이어 금감원 ‘중징계’ 검토
화인 이후 8년 만에…딜로이트와의 파트너 관계 깨질 수도
로저 다슨 부회장, 검찰 등 방문 “감사 강화” 처벌 선처 호소

대우조선해양을 부실 감사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을 감리 중인 금융감독원은 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건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징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이 최대 1년 이내의 감사인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정지를 당하면 2009년 화인경영회계법인 이후 8년 만에 중징계를 받는 회계법인이 된다.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안진회계법인의 배모 전 이사가 이달 22일 구속 기소된 것과 연관이 깊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3~2014 회계연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이 회사가 이중 장부를 관리하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냈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지난해 5월 취임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빅배스(Big Bath·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를 단행하려 하자 이를 말린 혐의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감사 기준 위반과 조직적 개입이 사실이면 업무정지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사례

법인명	사유 및 처벌	시기
화인경영회계법인	케이디세코 감사인의 기준 위반 묵인으로 6개월 업무정지	2009년 9월
산동회계법인	대우 부실감리로 1년 업무정지	2000년 9월
청운회계법인	대우통신 부실감리로 1개월 업무정지	1999년 2월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간 파트너 관계가 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우그룹 사태로 2000년 산동회계법인에 업무정지 1년이 내려지자 KPMG는 국내 파트너사를 삼정회계법인으로 바꿨다.

딜로이트 미국 본사의 로저 다슨 부회장은 이달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금융·사정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인 처벌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배 전 이사의 구속 기소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 품질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란 입장은 변함없으며, 이번 사안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리와 검찰의 수사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와 관련된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최종적 감리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이 감사 기준을 위반하면 금융당국은 업무정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 감사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치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대우조선 자회사 2곳 연내 매각 공공선박 발주 시기 앞당긴다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개최
4대 업종 구조조정 계획 발표

최순실 사태로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4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계획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각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조선 3사는 자구 계획 총 10조3000억 원 중 3조5000억 원을 23일 이행 완료했다. 대우조선은 1조5000억 원을 이행했고, 2018년까지 인력 감축 규모를 44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리는 추가 자구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자회사 디섹과 웰리브를 12월에 매각 완료한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스톤PE와 현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주 절벽’에 대응키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 3개 군함을 연내 발주한다고 밝혔다.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도 상반기로 발주 시기를 앞당긴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1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선박 250척 이상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사업포트폴리오 재편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기획과 사업 공고를 내달 완료하고, 자율운항시스템 등 스마트 선박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에 대해서는 ‘한국선박회사(가칭)’ 설립을 완료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캠코선박펀드 등 금융 지원을 기존 2000억 원에서 내년부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도 지원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M&A가 이뤄지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하고, 친환경·IT 등 스마트 설비로 연구개발(R&D)을 통해 고부가·초경량 등 경쟁 우위 품목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4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기업·산업 구조조정 분과회의(매달)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분기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트럼프 취임도 전에 美·中 무역전쟁 돌입

미국 ‘시장경제지위 불인정’에
중국 ‘WTO제소’ 맞대결할 듯

미국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하기도 전에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있는 ‘시장경제’ 지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이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합동상무위원회 참석 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중국은 외자 진출 자유 등 시장경제 지위 인정에 필요한 6개 항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경솽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발전시킨 성과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을 성토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15년간 시장경제 위 결정을 유예한다는 방침에 동의했다. 이에 중국은 올해 12월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 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개별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은 WTO에 제소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면 미국은 예전처럼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없어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양국의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초대 상무장관으로 억만장자 투자자인 윌버 로스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스는 철강과 석탄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거쳐 되파는 기업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소비절벽…“가게 내놓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혼란, 내수·수출 부진에 가계부채까지 1300조 원을 넘어서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지난달의 101.9보다 6.1포인트나 급락했다. CCSI가 장기 평균인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6월(98.9) 이후 5개월 만이다. 암울한 경제 상황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24일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꽉 닫힌 지갑…소비심리 금융위기후 최악

〈2009년 4월 94.2〉

11월 95.8로 전달보다 6.1P 내려
대내외 불안에 향후 경기전망도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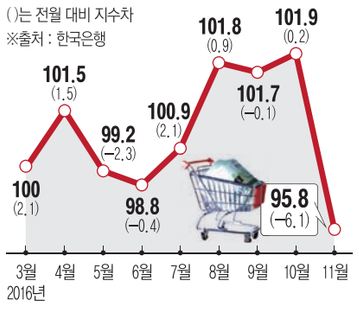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에 비해 6.1포인트 내린 95.8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낙폭으로는 작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6.7포인트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CCSI란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정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경기 관련 CSI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11월 현재경기판단 CSI는 60으로 10월(72)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

( )는 전월 대비 지수차
※출처 : 한국은행



2009년 3월 34를 기록한 이래 7년 8개월 만의 최저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2009년 3월(64)과 같은 64였다. 10월(80)보다는 16포인트가 폭락했다.

경기 인식이 악화되자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 형편도 추락했다. 11월 현재생활형편 CSI는 10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90으로 집계됐다. 생활형편전망 CSI는 93으로 10월보다 5포인트 떨어지면서 3년 11개월 전인 2012년 12월(93)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 CSI는 98로 10월(101)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임금수준전망 CSI 역시 111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 관련 인식이 매우 안 좋아졌고, 생활 형편이나 가계 관련 지수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최순실 게이트 불똥…로비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면세점 추가 선정 물건너가나

검찰이 올해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사무실과 대전시 관세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5면

검찰은 이날 SK·롯데그룹도 압수수색했다. 두 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면세점 사업을 따내려고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과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대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내정, 특혜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세청 직원이 면세점 업체 선정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면세점 업계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더군다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이 지난해 입찰 선정에 탈락하고 면세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타 업체가 특허를 따내면서 관세청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아울러 이번 3차 면세점 선정이 롯데와 SK에 특허권을 내주고자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서면서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이슈 & 인물 ▶17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오로지 종교학 연구에만 매진한 한국 종교학계의 거두인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그는 현 시국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식인들의 자만과 오만을 꼽으며 “과거에서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에서 지금을 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명예교수는 또한 “100만이 모인 ‘촛불문화’가 성숙한 정치의식 표출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리에 나선 정치인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대의민주주의를 충실히 하게 하는 것이 촛불문화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시국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으로 유고의 ‘극기복례(克己復禮)’와 불교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거론했는데….



신재원 대표 ▶14



범진규 대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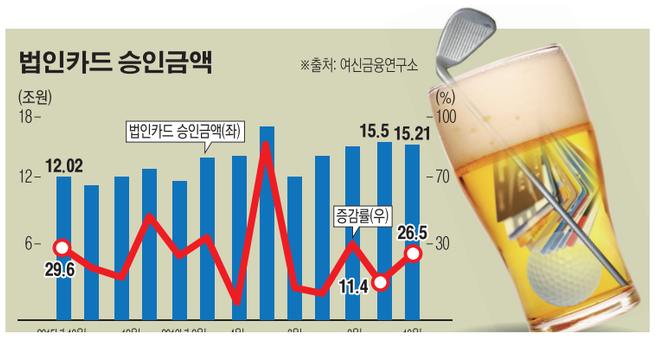
산업 ▶9
3대 아쿠아리움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데이터 뉴스 DataNews



김영란법에 발묶인 '법카'… 골프·유흥주점 이용액 '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유흥주점·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카드 전체 승인액은 오히려 늘었으며, 전반적인 소비도 증가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 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승인액(853억 원)은 15.1%, 개인카드 승인액(2903억 원)은 2.3% 각각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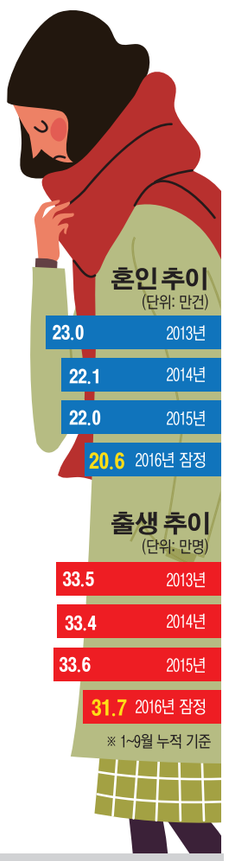
반면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승인액(1조3924억 원)은 0.2% 줄었지만, 개인카드 승인액(6조7993억 원)은 9.7% 증가해 전체 카드의 승인액(8조1917억 원)은 7.9% 늘었다.

골프장에서도 법인카드 승인액(1720억 원)은 7.9% 줄었지만, 개인카드(3144억 원)는 7%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4864억 원)은 1.2%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액은 6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체 카드 승인액은 54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결혼 안하고 애 안낳고… 인구절벽 현실화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혼인과 출생은 역대 최소치를 이어갔다.

25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혼인 건수는 1만78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200건(6.3%) 감소했다. 올 1~9월 누적 혼인 건수는 20만59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줄며 2000년 집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2000년 이래로 연간 혼인이 30만 건을 밑돈 적은 아직 없다.

9월 출생아 수는 3만43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100명(5.8%) 감소했다. 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31만7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줄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9월 이혼 건수는 91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건(3.4%) 늘었다. 1~9월 누계 이혼은 7만9200건으로 지난해보다 1.5% 감소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21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명(3.3%) 증가했다. 1~9월 누계 사망자는 20만8900명으로 1.0% 증가하며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감소로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필 기자 roman@

집단대출에 사실상 DTI… '빚내서 분양' 봉쇄

〈총부채상환비율〉

8·25 가계부채 후속대책

정부가 내놓은 8·25 후속 대책은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을 조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두고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한 것과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속 대책의 핵심은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에 국한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수분양자는 약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정희수 하나경제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 포함될 경우 분할상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임대사업자들은 곤란하게 될 것 같고, 실수요자는 고액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집단대출로 확대

소득 입증 못하면 잔금대출 어려워져

투기수요 억제해 부채감소 효과 기대

실수요자 비은행권 이동 가능성 우려

인센티브 제공 보금자리론 출시 계획

시행효과는 잔금대출이 적용되는 2019년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9년 이후 매년 1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참고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 연구원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면적으로 실제 대출심사에 포함되면 그때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내년 1분기 중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도 대출을 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된다. 대출자는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 부분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상호금융권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든 빌리게 되어 있어 상호금융이 아닌 제2금융,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도록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내년 1월 이전에 분양받은 중도금 대출자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기대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및 DTI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잔금대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다.

황윤주·홍샛별 hyj@etoday.co.kr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 출처: 금융위원회

현행 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조건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업권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개정	12월중	업권별 협회
고부담대출(LTV 또는 DTI가 60% 초과시)의 대출 전액 (LTV가 60%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면 제외)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잔금대출에 대한 주금공 신상품 출시	내년 1월중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정/시행	내년 1분기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중앙회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신용정보원 전산구축	12월초	신용정보원
		금융권 자율활용	연내	업권별 협회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실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 특별점검	내년 상반기	금융위, 금감원

※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위 조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로 취급

최고치 갈아치운 '국고채 금리'… 한계가구 떠안은 '대출금리' 위협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계가구의 이자 부담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내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3.6bp(1bp=0.01%p) 오른 연 1.811%로, 10년물도 연 2.182%로 4.3bp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20년물과 30년물, 50년물도 각각 4.5bp, 4.0bp, 3.8bp 상승했다.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17명의 정책 결정자는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 금리인상 확률은 93.5%로 치솟았다.

3년물 年 1.8%·10년물 年 2.18%로

대출이자 1%P 오르면 상환액 14%↑

제2금융권 내몰린 저소득층 위기

이 영향에 은행들의 대출금리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시장금리인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월 말과 비교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0.38%포인트 오른 3.42~4.72%, 국민은행은 0.12%포인트 상승한 3.18~4.48%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2.94~4.24%에서 3.22~4.52%로 0.28%포인트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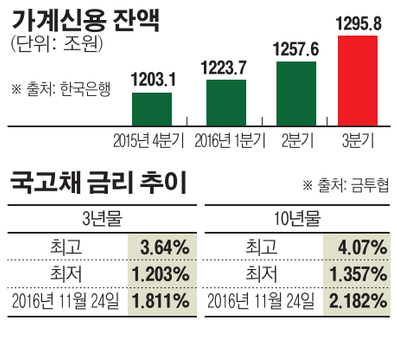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12월 연준이 실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금리도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리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4%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한계가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2월과 8월 각각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떠밀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9월 말 기준 총 2금융권의 가계대출 누적액은 22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조 원 늘며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한계가구의 가계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당국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남주현 기자 jooh@



국고채 금리 추이

※ 출처: 금투협

3년물		10년물	
최고	3.64%	최고	4.07%
최저	1.203%	최저	1.357%
2016년 11월 24일	1.811%	2016년 11월 24일	2.182%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개별) 참가업체 모집 공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공유·소통·협력]

해당품목	박람회명		개최국	개최일정
	국문	영문		
농림수산 축산식품 전반(21)	모스크바식품박람회	PRODEXPO	러시아	2.6-10
	수퍼마켓트레이드쇼	SMTS	일본	2.15-17
	두바이식품박람회	Gulfood	UAE	2.26-3.2
	애너하임식품박람회	NPEW	미국	3.10-12
	동경식품박람회	FoodexJapan	일본	3.7-10
	멕시코식품박람회	Alimentaria	멕시코	3.8-10
	영국런던식음료박람회	IFE UK	영국	3.19-22
	베이징유아용품박람회	MICF	중국	3.25-27
	베트남식품박람회	F&H Vietnam	베트남	4.25-27
	브라질식품박람회	APAS	브라질	5.2-5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CANTON Fair	중국	5.1-5
	캐나다식품박람회	SIAL Canada	캐나다	5.2-4
	아프리카식품박람회	F&H Africa	남아공	5.7-9
	밀라노식품박람회	TUTTO	이탈리아	5.8-11
	상하이식품박람회	SIAL China	중국	5.18-20
	필리핀식품박람회	IFEX	필리핀	5.19-21
	방콕식품박람회	Thaifex	태국	5.31-6.4
	미얀마식품박람회	F&H Myanmar	미얀마	6.7-9
	타이베이식품박람회	Food Taipei	대만	6.21-24
	뉴욕식품박람회	Fancy Food Show	미국	6.25-27
	쾰른식품박람회	ANUGA	독일	10.7-11

□ 모집개요

○ 응모자격 : 농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나 단체(협회)

○ 모집대상 : 2017. 1. 1 ~ 6. 30 기간중 「aT 국가관이 참가하지 않는」 해외 개최 국제식품전문박람회

○ 지원규모 : 약 80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접속 → aT사업-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박람회 참가 신청

* 반기당 최대 2개까지 신청 및 선정 가능

○ 신청기간 : 2016. 11. 28(월) ~ 12. 5(월) 15:00 限

○ 샘플 및 서류 : 지원신청시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 (기제출업체도 반드시 등록 필요)

구 분	등록해야하는 샘플사진 및 서류파일 (필수는 반드시 등록, 선택은 등록시 가점)	원본제출
제품샘플 사진	- (필수) 실제 전시할 제품의 사진 ※ 실제 출력된 제품사진 외 디자인 파일만 제출 시 미인정	선정된 업체는 이후 공사가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선정취소)
구비서류 파일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인증서 사본 (홈페이지에 기공지된 ISO, HACCP, FDA, 할랄 등 26개에 한함)1부 - (선택) 제품카탈로그 (국·영문 및 박람회 개최 국가 언어) 언어별 각 1부 - (선택) 제품에 부착된 현지어 포장표기 확인자료 (제품라벨 등) 1부 - (선택) 신청서상 홈페이지 링크 - (선택) 농식품 해외마케팅 교육 수료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1부 - (신규업체) 수출실적 조회를 위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1) 동의서 및 인감제출시 aT에서 제출업체의 수출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자료는 철저한 보안유지하에 내부자료로만 활용됩니다.(신규참가업체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 우편제출)

□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aT 내부 및 외부 농식품 수출 전문가로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별 점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응모업체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응모업체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심사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결과발표 : 2016. 12. 12(월) 예정

-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접속 → aT사업-고객지원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박람회 참가 신청 → 결과 조회 (선정된 업체는 개별통지)

□ 선정업체 지원사항

구 분	5대 시장	동남아 시장	기타 시장
지원한도	4,000천원 / 1회		8,000천원 / 1회
해당지역	○ 5대 시장 : 일본,미국,중국(홍콩),러시아,대만 ○ 동남아 시장		○ 5대 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
지원항목	○ 임차비 : 18㎡이내 / 장치비 : 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	○ 출장자(1인) 왕복항공료(E-Class 기준, 5대 시장 제외)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野 '법인세·소득세 인상' 드라이브…힘빠진 與 '일방통과'?

가뜩이나 어려운데…숨죽인 재계

20대 대기업집단 법인세 ※2015년 법인세 납부 상위 정렬

순위	기업	2015년 법인세	22%→25% 인상 가정시 법인세	추가 부담액 추정치
1	삼성	4조759억 원	4조6317억 원	5558억 원
2	현대차	2조7631억 원	3조1398억 원	3768억 원
3	SK	1조7673억 원	2조82억 원	2410억 원
4	LG	7659억 원	8703억 원	1044억 원
5	롯데	7015억 원	7972억 원	957억 원
6	포스코	5805억 원	6597억 원	792억 원
7	GS	2453억 원	2788억 원	335억 원
8	신세계	2323억 원	2640억 원	317억 원
9	CJ	2036억 원	2314억 원	278억 원
10	LS	1937억 원	2201억 원	264억 원
11	한화	1697억 원	1928억 원	231억 원
12	대우조선해양	1049억 원	1192억 원	143억 원
13	효성	1013억 원	1151억 원	138억 원
14	금호아시아나	950억 원	1080억 원	130억 원
15	대림	943억 원	1072억 원	129억 원
16	두산	856억 원	973억 원	117억 원
17	한진	574억 원	652억 원	78억 원
18	KT	251억 원	285억 원	34억 원
19	OCI	-95억 원		
20	현대중공업	-484억 원		

20대 기업 법인세 ※2015년 법인세 납부 상위 정렬

순위	기업	2015년 법인세	22%→25% 인상 가정시 법인세	추가 부담액 추정치
1	삼성전자	3조1215억 원	3조5471억 원	4257억 원
2	현대차	1조557억 원	1조1996억 원	1440억 원
3	SK하이닉스	8771억 원	9967억 원	1196억 원
4	현대모비스	6592억 원	7491억 원	899억 원
5	POSCO	4540억 원	5159억 원	619억 원
6	기아차	2956억 원	3359억 원	403억 원
7	KT&G	2840억 원	3227억 원	387억 원
8	현대제철	2676억 원	3041억 원	365억 원
9	롯데케미칼	2235억 원	2540억 원	305억 원
10	삼성물산	2155억 원	2449억 원	294억 원
11	롯데쇼핑	2143억 원	2435억 원	292억 원
12	SK이노베이션	1948억 원	2214억 원	266억 원
13	LG디스플레이	1942억 원	2207억 원	265억 원
14	삼성전기	1905억 원	2165억 원	260억 원
15	LG화학	1713억 원	1947억 원	234억 원
16	KCC	1662억 원	1889억 원	227억 원
17	삼성중공업	1640억 원	1864억 원	224억 원
18	한국타이어	1454억 원	1652억 원	198억 원
19	고려아연	1432억 원	1627억 원	195억 원
20	NAVER	1393억 원	1583억 원	190억 원



법인세 인상땐 20대 그룹 2조 더 낸다
삼성그룹 추가 부담액만 5558억 추정

법인세율 '22%→25%' 인상효과 분석
개별 기업선 삼성전자만 4257억 집계
현대차그룹 3768억중 현대차가 1140억
영업익서 현금으로 빠져나가 부담 커질듯

정치권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증세가 현실화되면 20대 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부담이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대기업 집단 소속 자산기준 상위 20개 그룹의 법인세 인상(22%→25%)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기준 법인세 대비 추가 부담액은 총 1조8176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총 4조759억 원의 법인세를 낸 삼성그룹의 추가 부담액은 555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주력사인 삼성전자의 추가 부담분은 4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3조1215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23.3%에 달한다. 또, 이는 지난해 국가 법인세 수입의 7%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 법인세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삼성물산의 역시 2155억 원에서 2449억 원으로, 294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삼성전기(1905억 원→2165억 원), 삼성중공업(1640억 원→1864억 원) 역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조7631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현대차그룹은 3768억 원가량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계열사 중 현대차가 1조557억 원에서 1조1997억 원으로 1440억 원 늘어난다. 또 현대모비스 899억 원, 기아차 403억 원, 현대제철 365억 원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SK그룹(2410억 원), LG그룹(1044억 원), 롯데그룹(954억 원), 포스코(792억 원), GS(335억 원), 신세계(317억 원), CJ(278억 원)등의 순위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대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상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393억 원으로 국내에서 20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낸 네이버는 추가로 190억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아모레퍼시픽 역시 189억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조세전문가는 "법인세 인상은 개별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 납부 금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현금 흐름표에 나타난 법인세를 기준으로 추정했다. 각 개별 기업들이 2015년 실제 납부한 법인세에서 법인세차감전이익을 추정, 25% 법인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내년부터 법인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힘이 빠지면서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요청해 놨다. 현재는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여야가 부수법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인 한 새누리당 의원은 "협상 주체인 3당 중 2개 당이 야당"이라며 "밀당의 끝은 결국 법인세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해봐야 인상률을 조금 낮추는 등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남은 변수라고 하면 다른 법안과 딜을 하는 것인데, 야당의 태도가 완강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안 되면 집권해서라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의로 부수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

'법인세' 민주 3%P·국민의당 2%P↑
초고소득자 세율은 41%·45% 제시
여야 부수법안 놓고 '밀당'하지만
야당 과반, 합의없이 직권상정 가능

장은 사실상 야당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전체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수개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세금 인상을 반대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셈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표(영업이익) 최고구간이 '200억 원 초과'로 22%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법인세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도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인상해 주는 방안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표(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다.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 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4%로 2%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올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 안이 부수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440곳이다. 국민의당 안이 관철될 경우 1030곳이 오른 세율을 감당하게 된다.

다만 전체적인 세수 확대 규모는 민주당안이 더 크다. 민주당 안이 통과하면 연간 법인세수가 4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 반면, 국민의당의 안은 세수가 2조4600억 원 늘어날 것을 예측됐다.

소득세법도 사정이 비슷하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게 야당의 기본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은 연소득 1억5000만 원에 부과하는 38%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세법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4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41%, '10억 원 초과'땐 45%까지 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장대로 세율을 고치면 각각 1조 원과 2조 원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의중 기자 zerg@



한국경제 길을 묻다

하 '해법은 있나' 전문가 진단

"경제위기 해법의 첫 단추 '컨트롤타워'부터 세워라"

"금리인하, 부동산 회복 가계빚 연착륙으로…"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내년 우리 경제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건설투자, 부동산이다. 경기가 계속 안 좋다면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 단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올해 수출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부동산을 지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투자가 올해는 너무 좋았지만 앞으로 꺾일 것 같은데, 급락하면서 내년 경기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 수 있다"며 "가계부채는 심각하긴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위험한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가계부채 상당부분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에 관련된 것인데 가격이 급락하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가격만 급락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도 연착륙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정부 정책 부분에서 연초까지는 잘해오다가 11·3 대책은 … (아닌 것 같다)"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부동산경기가 거의 꺾이는 상황에서 한 대 더 먹인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이 부동산경기를 급속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경기는 정말 신중하게 연착륙되도록 해야 했는데, 서서히 진정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완화할 대책으로는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를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지금 현재보다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은 조금 더 확장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경기급락을 막아야 하니 정책적 판단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 통화정책도 지금은 동결로 가는 게 맞는데 여유만 있다면, 경기가 문제가 된다면 한 차례 정도 더 인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日처럼 장기 저성장 우려, 경제 체질개선 시급"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이 올 수 있다"며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 2017년 경제전망에서 수출부진 지속, 내수활력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2% 수준으로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전망한 것이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세계 경제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돼야 하고 신산업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충과 표준의 정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을 통해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는 연구개발 확대 및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글로벌경기 위축 여파가 예상보다 클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신축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 하향 흐름이 빨라질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정책은 내년 예산안도 재정수지 적자로 편성했듯이 당분간 경기확장적 기조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기업 구조조정 시급… 정부, 적극적 재정정책"



정대희 KDI 연구위원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최순실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 국책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반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해 관심을 모았다.

KDI는 대내외 부정적 여건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경기 전반이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대희 연구위원은 "내년에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최순실 사태에 대기업 총수들이 다 검찰과 국정조사에 불려가서 투자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라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또 정치 불안은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고 소비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희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도 잘해야 하는데 최순실 정국에 지연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는 통화정책은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은 세수가 많이 들어와 추경까지 했는데 채권발행을 안 했다"며 "내년에도 재정은 나쁘지 않은 만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환율조작국이라고 하는데, 금리를 낮추면 환율을 내리는 거니까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는 건드리기가 힘들다"고 전망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정치적 이슈 먼저 풀어야 경제정책 속도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5일 "정부가 경기침체와 미국 차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슈부터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올스톱 된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현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 국정운영시스템을 본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2일 청와대가 경제팀 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야당의 강력 반발로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주 실장은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면 국가가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가 항상 경제보다 상위에 있다 보니 지금과 같이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수장을 기재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신 나서서 이끌 수 있는 차선책도 있다"며 "그만큼 경제 컨트롤타워 자리는 한시라도 비워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실장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꺼내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기존 정책 중 시급한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1300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요인으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신규 대출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차단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조선업 R&D 7500억 투입… ICT 융합

〈향후 5년간〉

4대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

해양플랜트 인력 6600명 양성

철강, 고부가·경량소재 키우고

석화,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

정부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의 향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조선산업 연구개발(R&D)에 75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연료추진선, 무(無)평형수선박 등 친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선박과 조선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기존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리고, 플랜트 설계전문회사를 설립해 2020년까지 전문 기술인력 66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대형선박 수리자급률은 1.3%에서 10%로 올리고, 1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형선박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LNG연료추진선 취득세 감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운산업은 정책금융기관 등이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 글로벌 해양펀드 개편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캠코선박펀드를 통해 중고선박 매입 규모를 1조9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상은 기존 벌크에서 컨테이너와 탱커까지 늘릴 계획이다.

철강산업의 경우 인수·합병(M&A)과 기술개발을 통해 판재류의 고부가, 경량소재 전환을 추진한다. 후판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 강관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을 단행키로 했다. 철근·형강은 불량 및 위조 수입재 유통 방지 등 시장관리에 역점을 뒀다.

기업별로 보면 동국제강은 포항 제2후판 공장 설비(180만 톤)를 매각하고 컬러강판 설비(10만 톤)를 증설한다. 하이스틸은 노후 강관설비(1만4000톤)를, 현대제철은 단강 제조용 전기로(20만 톤)를 매각해 고부가 제품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포스코는 2021년까지 경량소재 R&D와 설비에 43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석화산업의 경우 고기능 친환경 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지원을 집중한다. 내년 3대 부문 27개 과제 R&D에 352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감면을 병행한다.

아울러 △대산지역에 기초화학·정밀화학 기업 특화단지를 △대전 대덕지구에 대·중소 화학연구소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 주관·협조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종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매월 업종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4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은 기업·산업 구조조정 분과회의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리키로 했다. 앞으로 시장 여건 변화와 계획 추진 상황을 고려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엘시티 지라시' 공개하는 추미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엘시티 비리사건 관련 지라시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퍼스트클래스급 '프리미엄 고속버스' 오늘부터 운행

육상교통 고급화 경쟁 불붙었다

KTX·SRT 맞서 고객잡기 시동

고속버스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25일 운행을 시작하면서 다음 달 9일 개통하는 수서고속철도(SRT), KTX 등과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우선 서울~부산(1일 왕복 12회), 서울~광주(1일 왕복 20회) 두 노선만 운행된다. 특징은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S), 차선 이탈 경보장치(LDWS), 차량자세 제어장치(VDC) 등을 모든 차량에 기본 장착해 안전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좌석 수를 대폭 줄여(28→21석) 개인 좌석의 앞뒤 공간을 늘렸고 최대 160°까지 기울어지는 전자동 좌석, 조절식 목 베개, 고급스러운 좌석 시트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좌석별 보호쉘, 옆좌석 가림막(커튼), 노트북이나 서류를 볼 수 있는 좌석별 테이블, 전 좌석에 개별모니터를 설치했고 영화·TV·음악·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했다.

가장 중요한 요금(기본요금 기준)은 서울~광주 3만3900원, 서울~부산 4만4400원이다. 다음 달 9일 개통하는 SRT와 비교하면 서울~광주(4만700원)는 6800원, 서울~부산(5만2600원)은 8200원 저렴하다. KTX와 비교하면 서울~광주(4만7100원) 1만3200원, 서울~부산(5만9800원) 1만5400원 싸다.

하지만 운행시간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약점으로 꼽힌다. 서울~부산의 경우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KTX는 2시간 40분이면 도착한다. 프리미엄 고속버스 예매도 아직은 불편한 상태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두 개 노선 모두를 예매할 수 있지만, 인터넷 예매사이트는 코버스와 이지티켓으로 나뉘어 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으로 고속철도(KTX, SRT),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과 상호 경쟁함으로써 전체 교통 분야의 고객 서비스 수준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자동차연비센터〉

車연비 연구개발 공인기관 국내 첫선

에너지공단, 충북 진천서 준공식

美 EPA 규정 5종 연비시험 가능

국내 최초의 자동차 연비 연구개발 공인기관인 자동차연비센터가 충북 진천군에 들어섰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4일 충북 진천군 신척산업단지에서 고규창 충청북도 행정 부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연비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

지난해 8월에 착공한 자동차 연비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국가 평균연비 목표 24.3㎞/L 달성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동차 연비제도 강화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이 센터는 1만㎡ 부지에, 건축연면적 2960㎡,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고온과 저온시험실, 엔진성능시험실, 대형차시험실 등 첨단 시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연비센터에서는 국내 시험기관으로 유일하게 미국 EPA(환경보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환경의 연비시험(도심 주행, 고속도로 주행, 저온 주행, 고온 주행, 급가감속 주행)이 가능하다. 이륜 오토바이부터 중대형 트럭·버스까지 시험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 도로환경, 운전자 특성이 반영된 주행데이터를 가지고 한국형 연비시험 보정식을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표시연비와 소비자 체감연비 간의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센터는 자동차 연비 시험방법 개발과 연비제도 선진화 등 다양한 자동차관련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와 정비인력, 관련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비측정 이론과 실습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강요로 냈다"던 롯데 뇌물공여자로 바뀌나

檢, 면세점 추가 선정 관련 청탁 의혹
대통령 뇌물죄 적용 위해 수사 확대
SK·기재부 등 10여 곳 대상 압수수색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대가성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SK그룹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한 검찰이 24일 롯데와 SK, 기획재정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사 상황을 보면 1차 기소 때 '피해자'로 기재된 기업들은 추가 기소 때 '뇌물 공여자'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확보한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했는지 분석 중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개별 면담했다. 최 씨가 기소될 때 문제된 기업의 총수들 대다수가 이틀간 독대했던 지난해 7월과는 별개의 만남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지난 2월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뤄진 대화를 조사하던 중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와 SK는 이즈음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각각 75억 원, 8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미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낸 뒤였다. 당시 롯데는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 인허가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애타는 상황이었고, SK 역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사업권 신청을 놓고 고심 중이었다. SK네트웍스가 기존에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사업을 정리하려다가 이즈음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롯데가 75억여 원을 K스포츠재단 측에 줬다가 검찰 수사를 계기로 돌려받은 내용은 이미 최 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삼성 측이 최 씨 모녀 측에 직접 수십억 원을 건넨 부분을 1차 기소에서 빼놓았다. 추가 수사를 벌여 직권남용이 아닌 제3자 뇌물로 혐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이미 '강제로 냈다'고 결론난 롯데 자금을 놓고, 다시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것은 의외의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이 롯데 70억 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실체적 경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체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최 씨의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롯데그룹이 추가기소 때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롯데 측이 지난 6월 돈을 돌려받았지만, 뇌물수수죄는 돈이 건네진 시점에 이미 성립되므로 대가성이 입증되면 혐의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불러 15시간여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는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영길 기자 jyg97@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이대 前입학처장·학장 해임 요구

교육부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학사 특혜와 관련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해임을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이화여대 감사결과 주요 조치 내역'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 교수 7명 중징계, 8명 경징계 등 모두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7명은 남 전 입학처장과 김 전 학장을 비롯해 정유라의 입시 면접평가 위원이었던 교수 3명,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줬던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 정유라가 소속된 체육과학부 이원준 학부장 등이다.

특히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정직 가운데 '해임'을 지정해 요구했다. 나머지 5명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최경희 전 총장과 변접 평가위원이었던 박 모 교수 등 8명이다. 이외에 입학전형 업무 운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전 입학처 부처장 등 3명은 경고, 김선욱 전 총장 등 3명은 주의, 2015학년도 입시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등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 줄어든다
내년부터 평균 44만원→24만원

내년부터 임산부의 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 부담 비용이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을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20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부는 병원 외래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p씩 인하된다. 임신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춰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45.5%) 내려가게 된다. 특히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의 경우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본인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박은평 기자 pepe@

모래놀이 재밌어요


제38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 관람객들이 모래 체험을 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3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해 유아교육, 도서, 교구, 완구 등을 선보인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일 '5차 촛불'…청와대 200m 앞까지 갈까
경찰, 율곡로 남쪽으로 제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주목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6일 5차 주말 촛불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최측이 계속 시도하고 있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26일 집회에) 서울에서만 150만 명,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지난 촛불집회 때 가지 못했던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26만 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한다는 것이다. 또 3·4차 촛불집회 때 경찰의 최후 저지선이었던 내자동로터리(청와대에서 900m)를 지나 청와대 바로 인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청와대에서 200m)까지 행진하겠다는 의지다. 주최측은 "퇴진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에게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선 청와대 앞까지 반드시 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이번에도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와 삼청로 등을 지나는 행진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경로를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했다.

주최측은 경찰이 금지·제한한 4개 집회 장소와 4개 행진로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촛불집회가 거듭될수록 시위대와 청와대 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과 법원이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길을 열어줄 가능성을 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원은 3차 집회 행진을 내자동로터리까지 허용한 데 이어, 4차 때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청와대에서 460m)과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청와대에서 400m)까지 길을 열어줬다.

이선애 기자 lsa@

AI 전국 확산…13개 농장 '고병원성'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AI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된 시·군이 전국 10곳으로 늘면서, 살처분한 닭이나 오리는 95만 마리에 이른다.

25일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한 오리 사육농가에서 산란율이 15~20% 떨어지고, 오리 70여 마리가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폐사한 오리를 1차 검사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와 이 농가에서 키우는 오리 4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충북 진천 경계와 약 1㎞ 떨어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의 한 오리농장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도 늘었다. 농림축산방역본부는 일제 검사 과정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던 충북 음성군 5개 농가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했다.

충북의 고병원성 확진 농장은 음성 9곳, 청주 1곳 등 10곳이 됐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과 무안 육용오리 농장, 경기 양주 산란계 농장까지 13곳으로 늘었다.

신창 산란계 농장 이외에도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은 충북 음성·진천, 경기 포천, 충남 천안, 전북 김제 등이 있다.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확진된 이후 전날까지 전국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총 94만9700마리로 집계됐다.

이정필 기자 r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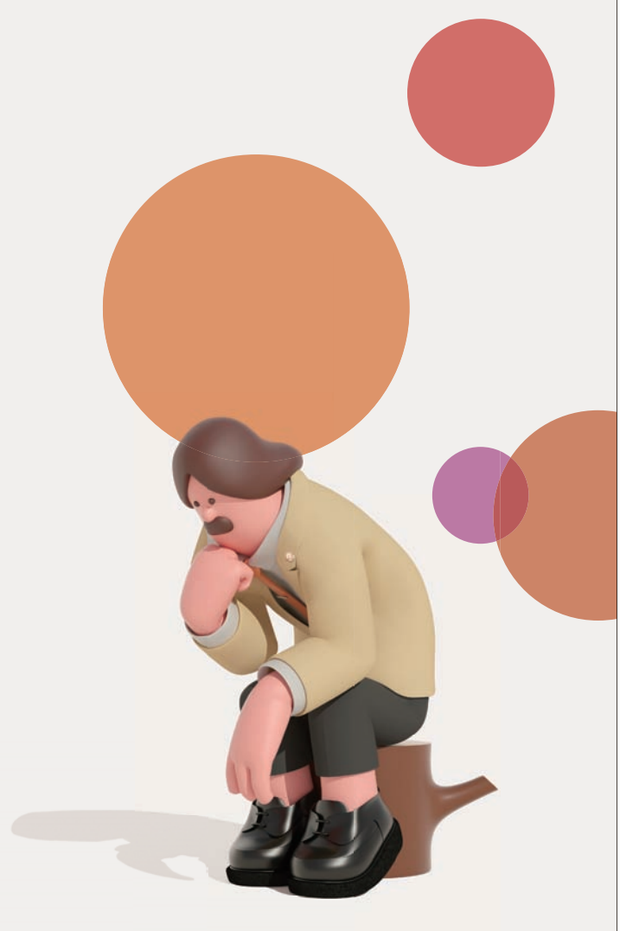
한화생명

한화생명의 70년,
멈추지 않는 생각 하나

"보험이 지금보다 더 따뜻할 순 없을까?"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더하는 일.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따뜻한 동반자이고 싶어서
한화생명은 더 생각합니다.



‘면접 몰표’ 강면욱, 안종범 前 수석 뒷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서류평가 9위서 면접 후 1위
안 前 수석 성균관대 1년 후배
“강 본부장 민다”는 얘기 나와
정권개입 통해 최종선임 의혹

강면욱〈사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박근혜 정권의 개입을 통해 최종 선임된 것이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투데이는 앞서 당시 한 면접관이 “추천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계성고, 성균관대 1년 후배인 강 본부장을 민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위원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25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원자별 경력점수 산정표’에 따르면 강면욱 현 기금운용본부장은 서류 평가에서 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실시한 면접 대상자 기준으로도 강 본부장은 권재완 AJ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이동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자문관, 정재호 새마을금고 CIO보다도 점수가 밑이었다. 그러나 면접 이후 강 본부장이 최종 1위를 기록, 차기 본부장으로 추천됐다.

당시 서류 평가 점수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한 후보는 “강 본부장을 선임하기 위해 그보다 점수가 높은 후보를 의도적으로 면접에서 제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류평가는 참여한 외부 전문가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거면 왜 서류 평가 점수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면접관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현준 보건복지부 국장,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었다.

강 본부장 역시 처음에는 안 전 수석을 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성균관대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에서 한 번 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 전 수석 등 성균관대 출신 당선자 축하연은 2012년 5월 3일 해당 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당시 축하연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건배사 제의는 ‘충성’과 ‘함께하자’가 주였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내부 분위기는 침체돼 있다. 한 운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이 같은 분위기에서 그 누가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지원하려 하겠냐”고 토로했다.



정권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은 이 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것과 연관이 깊다. 전임 국민연금 기금운용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자리가 높지 않은 자리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점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정권에서 탐을 낼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강 본부장의 선임과 관련, “지원자별 경력점수 산정표는 추천위원회 서류심사 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강 본부장은 합리적인 리더십과 소통 능력 및 탁월한 영어 구사능력 등으로 글로벌 감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국민연금 기금이사 선임 과정

2015년

11월 4일	국민연금 새 본부장 모집 공고.
11월 16일	지원서 마감. 18명 지원. 강면욱 본부장 평가점수 중위권. 추천위서 “안종범 수석이 강면욱 원한다” 돌아.
12월 28일	후보자 면접.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면접관 포함.
12월 31일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 사전 내정 의혹.

2016년

2월 15일	문 이사장 강면욱 추천. 정진엽 복지부 장관 승인.
2월 19일	국민연금 안종범·강면욱 관계 부인 보도자료 배포

2015년 11월 실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서류 평가 결과

유OO	52.4	이OO	47.0
권OO	50.2	정OO	45.8
박OO	47.6	김OO	45.4
김OO	47.6	강면욱	45.0
오OO	47.5	안OO	41.1

‘꺾기 대출’ 농협생명에 과태료

저신용자에 대출 해주고 보험 팔아
금감원, 예보와 함께 정기검사 돌입

급속도로 증가하는 2금융권 대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농협생명의 ‘꺾기’ 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5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저신용자 차주에게 보험상품을 불공정하게 판매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 대상으로 통보됐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개인 차주에 대해 대출 시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러나 농협생명 A지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중소기업 대표자 1명과 저신용자인 개인차주 3명에게 대출 4건(3억7870만 원)을 실행한 전후 1개월 동안 보험상품 4건을 판매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검사에 착수할 때까지 2년여 동안 농협생명이 벌어들인 부당 보험료는 54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른 2금융권 대출 행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가계대출 누적액은 277조7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1000억 원 늘었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기타금융기관(생·손보사, 우체국보험, 카드사, 할부사 등)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7조9000억 원 증가한 34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형식으로 농협생명을 상대로 정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공동검사는 금감원에서 예보에 요청했으며, 예보에서는 7명의 검사 인력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농협생명의 계속기업 가치를, 예보는 청산가치를 중점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산건전성은 물론 가계신용, 기업대출 등 현재 취급하고 있는 대출 현황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보유자산, 보험계약 등을 살펴보면서 자체 개발한 모형을 통해 도산지수 등을 평가해 회사의 청산가치를 진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은행 하반기 공채 마무리… 1220명 내년 영업점 배치

내달 초까지 합격자 발표
인원 작년보다 25% 줄어

은행권의 올 하반기 공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하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한 신입 은행원들은 은행별 6~9주간의 연수교육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일선 영업점에 배치된다.

6대 은행은 올 하반기 122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공채 인원 1640명보다 25.6% 줄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채용 규모가 축소된 탓이다.

주요 은행 하반기 공채 현황

은행명	채용규모(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
신한은행	200명	미정
국민은행	300명	11월 30일
하나은행	200명	12월 초
우리은행	200명	11월 30일
농협은행	140명	12월 16일
기업은행	180명	12월 1일

※ 출처: 각 은행

은행별로 신한은행은 올 하반기 약 2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2차 면접심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미정이다. 최종 선발된 은행원은 9주간의 연수를 거치게 된다.

국민은행은 이달 23~24일 2차 면접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300명 내외의 신입 은행원들은 8주간의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된다.

12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하나은행은 지난주 실시한 합숙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 임원면접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200명 내외의 신입 행원을 뽑는다.

우리은행은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달 30일 200명 내외의 하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입 행원들은 6주간의 연수교육을 마친 후 전국 영업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농협은행은 하반기 140명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180명 내외를 신규 채용할 예정인 기업은행도 현재 최종면접을 보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KEB하나銀 편의점서 소액 인출



KEB하나은행이 25일부터 편의점에서 소액 현금 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 포스(PoS)단말기를 활용해 소액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로, 지난달 20일 현금IC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한 캐시백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하나은행의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체크카드 현금IC’나 ‘신용카드 현금IC’를 통해 1일 1회 최대 10만 원까지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사진제공 KEB하나은행

보험대리점 불건전 영업 막는다

금감원 상시감시 시스템 강화
감시지표 11개→19개로 확대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의 상시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대형 대리점(설계사 500인 이상)의 상시감시지표를 기존 11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보험상품별 불완전판매 비율 등의 지표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엔 불완전판매 비율, 청약철회율, 민원발생률 등을 중심으로 감시했지만 앞으로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월말계약 집중률, 고액계약 건수 비중, 원거리 청약률 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중형 대리점(설계사 100인 이상)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는 지난달에 개발을 완료했다. 전체 업무 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각 부문별로 위규행위 가능성 및 취약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11개) 및 보조지표(8개) 등 총 19개 지표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매반기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별 취약 부분을 추출할 방침이다.

소형대리점(설계사 100인 미만)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는 내년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위탁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손보협회에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강화에 나선 것은 보험대리점이 외형 위주의 성장과 과당경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규준 기자 abc84@

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
시장으로 | 미래로 | 세계로

에너지도 저장고에 담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할 수 있데요

남은 전기로 달리는 ‘전기자동차’
전기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소(ESS)’
에너지를 똑똑하게 나눠 쓰는 ‘스마트그리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보관·사용하는 ‘에너지자립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빌딩’ 등
우리의 삶은 한층 발전하고, 더욱 즐거워집니다.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에너지신산업
이미 우리 생활에 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아산사회복지재단
Asan Foundation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29년간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 의료봉사를 이어온 요셉의원



병원 앞에 모인 이문주 원장과 신완식 의무원장 (앞줄 오른쪽 두·세번째)
신혜영 비따 원목수녀 등 요셉의원 자원봉사자들

제28회 아산상 시상

- **아 산 상** 요셉의원
- **의료봉사상** 박종철
- **사회봉사상** 한국SOS어린이마을
- **복지실천상** 김수옥 서혜미 송규상
- **자원봉사상** 가톨릭의대성우회 배재영 한경희
- **효행·가족상** 신창한 임종순 전순래

2017년 아산상 추천 안내

시상부문	인원	상금
아 산 상	1명	3억원
의료봉사상	1명	1억원
사회봉사상	1명	1억원
복지실천상	3명	3천만원
자원봉사상	3명	3천만원
효행·가족상	3명	3천만원

- 추천 가능한 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학, 사회단체,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단체, 의료기관

-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 2017년 6월 30일(금)

  – 접 수 처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http://www.asanfoundation.or.kr)

  – 문 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2-3010-2562)

아산사회복지재단

코오롱인더스트리, 베트남공장 신설

PET 타이어코드 1·2위 韓 싹쓸이 예고



23일(현지시간) 베트남 빈증성 청사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왼쪽부터),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쩐 반 남 빈증성 당서기장, 쩐 타잉 리임 빈증성장 등이 타이어코드 생산공장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코오롱인더스트리

연산 3만6000톤 규모
점유율 15→27% 확대
'업계 1위' 효성과 함께
글로벌 점유율 70% 차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베트남에 3만6000톤 규모 폴리에스터(PET) 타이어코드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이 공장이 신설되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시장점유율 27%로 업계 2위에 올라서게 되며, 업계 1위인 효성과 합치면, 한국 기업이 전 세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시장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베트남 빈증성에 26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만6000톤 규모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생산공장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장은 원사생산부터 제직, 열처리, 완제품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계를 갖추고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타이어코드는 자동차 타이어의 안전성, 내구성, 주행성을 보강하고자 타이어 속에 들어가는 섬유 보강재로,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다. 특히 승용차용 타이어에 많이 쓰이는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는 국내 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분야다. 효성은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시장에서 점유율 45%를 차지하며 업계 1위를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처음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한 효성은 2002년 미국 미쉐린의 타이어코드 공장 인수, 2006년 미국·유럽·남미의 굿이어 타이어코드 공장 4곳을 인수하며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의 타이어코드는 원재료부터 원사생산, 제직,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한 회사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하다"며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과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맺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979년부터 구미공장에서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사업을 시작한 이후, 국내 타이어업체뿐 아니라 미쉐린, 브릿지스톤, 굿이어, 콘티넨탈 등 글로벌 메이저 타이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한국과 중국 공장에서 7만7000톤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를 생산해 시장점유율 15%로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베트남 공장의 신규 물량이 더해지게 되면 연간 11만3000톤의 타이어코드를 생산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7%를 차지하며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된다.

최영무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는 "베트남 타이어코드 공장 투자 결정은 동남아를 발판으로 한 글로벌 자동차 소재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베트남 공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핵심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SK주식회사 C&C 판교 캠퍼스에서 박정호 SK(주) C&C 사장(왼쪽 네 번째)과 저스다 양치우친 대표(왼쪽 세 번째) 등이 떡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주식회사 C&C

SK㈜ C&C '글로벌 물류' 본격화

홍하이그룹과 합작사 'FSK L&S' 출범… "세계시장 공략"

SK주식회사 C&C가 글로벌 물류 업무아웃소싱(BPO)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SK(주) C&C는 홍하이 그룹 팍스콘의 물류 자회사인 저스다와 함께 설립한 글로벌 융합 물류 합작사 사명을 'FSK L&S'로 확정 짓고 공식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출범 기념식에는 박정호 SK(주) C&C 사장과 이호수 IT서비스사업장, 유영상 사업개발부문장, 양치우친 저스다 대표 등 양 사 경영진과 신설법인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FSK L&S의 사명은 팍스콘과 SK의 사명, 물류&솔루션을 종합해 만들었다. 저스다의 글로벌 물류사업과 SK(주) C&C의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 등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융합물류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FSK L&S는 융합물류 통합솔루션 브랜드 '케롤'을 공개했다. 케롤은 기업공급망 전반에 걸친 컨설팅과 융합물류 ICT 플랫폼을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4자 물류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 회사는 케롤을 통해 글로벌 어느 지역에서든 화주와 물류업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물건과 돈의 흐름을 추적·관리·예측할 수 있다.

FSK L&S는 법인의 공식 출범과 함께 저스다와의 중국 내 물류 BPO 사업 공조 체제 강화에 나섰다. 우선 저스다와 함께 12월 중국 내 물류 BPO 사업 수행을 위한 물류 공조 프로세스를 정립한 후, 한·중 간 전자상거래 물류사업 및 물류포워딩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후 순차적으로 물류서비스 범위를 인도, 베트남, 일본, 체코 등 저스다의 글로벌 거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호 SK(주) C&C 사장은 "기업 물류는 글로벌 경쟁 속에 기업들의 기술·상품·가격 차별성이 줄어들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자리 잡았다"며 "FSK L&S가 기업의 생산 유통 과정 전반에 IC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물류 서비스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수입차 'SUV' 공세

마세라티 '르반떼'·인피니티 'QX80' 등 라인업 확대



마세라티 SUV '르반떼'.

수입차 업체들이 연말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잇달아 출시하며 공세에 돌입했다.

럭셔리카 브랜드 마세라티는 최근 SUV '르반떼'를 출시했다.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SUV다. 총 3가지 라인(가솔린 2+디젤1)으로 출시되며 부가세 포함한 판매가격은 기본형 디젤 1억1000만 원, 르반떼 1억1400만 원, 르반떼S 1억4600만 원부터 시작된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더 뉴 GLE 쿠페'와 '뉴 GLS'를 출시하며 SUV 라인업을 6종으로 확대했다. 랜드로버도 이달 중순 '2017년형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출시하며 판매량을 늘리고 있고, 인피니티코리아 역시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6인승 플래그십 SUV '2017년형 QX80'을 출시했다. 볼보는 플래그십 SUV인 'XC90'을 월 100대 이상 팔고 있다.

수입차들의 SUV 라인업 확대는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수입차협회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수입차 판매 전체 대비 SUV의 비중은 30.8%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세단 점유율이 72.7%에서 67.6%로 5.1%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SUV 성장세가 눈에 띈다.

한 수입차 딜러는 "유모차 등을 실을 수 있는 넉넉한 적재공간이 필요한 3040세대가 SUV 모델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현대기아차 '신차' 반격

내년 '모닝' '제네시스 G80 디젤' 등 최소 7종 출시

올해 부진했던 현대기아자동차가 내년 최소 7종의 신차를 국내에 출시를 계획하며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다.



'CK'의 원형이 된 기아차 GT콘셉트카.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내년 국내 시장에 최소 7종의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풀체인지 '모닝' △CK(이상 기아차) △현대차 '그랜저IG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G80 디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G70 △프라이드 후속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며, 소형 SUV도 새롭게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내년 1월에 선보이는 풀체인지 '모닝'으로 올해 한국지엠 '스파크'에 내준 경차부문 왕좌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어 201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바 있는 'CK'도 출시한다. 'CK'는 회사의 첫 스포츠세단인 만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델명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야심작 '그랜저IG의 하이브리드' 버전은 준대형의 품격에 합리성을 더했고, '제네시스 G80 디젤'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디젤 모델로 회사 측의 기대를 받고 있다.

내년 하반기는 '제네시스 G70'과 프라이드 후속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G70'은 G80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체 크기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프라이드 후속은 올해 9월 파리모터쇼에서 선보인 기아차의 대표 소형차로, 유럽에 먼저 출시하고 국내에는 내년 하반기 출시한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경쟁이 치열한 소형 SUV 차급에서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SK텔레콤, SK컴즈 완전자회사 편입

'플랫폼 사업 강화' 승부수

SK텔레콤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고자 네이트를 운영하는 자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를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SK텔레콤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SK컴즈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SK컴즈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해당 주식 교환 건을 결의했다.

완전자회사는 전량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를 통해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의 종전 완전 자회사로는 유선 인터넷·IPTV 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 등이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000만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SK컴즈의 역량을 더 잘 활용해 회사가 지향하는 차세대 플랫폼(서비스 공간)을 강화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유한 SK컴즈 지분 64.54% 외에 나머지 지분을 주식 교환을 통해 전량 취득하게 된다. 주식 교환은 내년 1월 SK텔레콤·SK컴즈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2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SK컴즈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SK텔레콤과 SK컴즈의 주식 교환 비율은 1: 0.0125970이다.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 전량은 현금으로 교환되며 교환가격은 1주당 2814원이다. 이를 원하지 않는 SK컴즈 주주는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반대의사 접수에 응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1월24일까지 1주당 2956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CJ헬로비전과 M&A에 실패한 SK텔레콤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전략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앞서 SK텔레콤은 T맵, T전화, 클라우드 등 자사 플랫폼을 개방, 사업 기반을 위한 가입자 확대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북미와 중국에 각각 통화 플랫폼 'T전화'와 020 플랫폼을 내놓는다. 최근에는 재능 공유 플랫폼 '히든'을 출시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한국시장 두드리는 中 프리미엄폰

화웨이 'P9 시리즈' 이어 레노버 '팹2프로' 내달 출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한국 시장 진입이 한층 가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레노버도 다음 달 구글의 증강현실(AR)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 '팹2프로<사진>' 발표회를 열고,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 화웨이는 LG유플러스를 통해 'P9 시리즈'를 이달 출시했다.

국내 시장은 애플을 제외하고 이른바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외산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았다. 중저가 위주 모델이어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 지난해 걸그룹 EXID 멤버 하니를 앞세워 국내에 첫 스마트폰 '팹플러스'를 출시했던 레노버는 '팹2프로'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화면에 3차원(3D) 영상을 띄워 마치 현실과 같은 느낌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다. 이를 위해 뒷면에 3개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를 탑재했다. 레노버는 '팹2프로'를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다.

화웨이의 P9 시리즈는 카메라 업체인 라이카와 협업한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 관심을 모았다. 화웨이의 자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기린955'를 내장했고, 지문 인식 기능도 갖췄다. 정유현 기자 yhssoo@

64.5%… 3분기 연속 60%대

삼성전자가 글로벌 모바일 D램 시장에서 점유율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25일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 글로벌 모바일 D램 시장 점유율이 64.5%로 2분기 61.5%보다 3.0%포인트 올라갔다. 3분기 매출은 29억6000만 달러(3조4957억 원)를 올려 2분기(24억1800만 달러)보다 22.4% 증가했다.

삼성의 3분기 점유율은 모바일 D램 시장 점유율을 별도로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 점유율은 2015년 2분기 57.6%에서 3분기 56.9%, 4분기 58.2%로 6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가, 올 1분기 60.4%로 60% 벽을 돌파한 뒤 두 분기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찍었다.

시장 점유율 2위는 SK하이닉스로 3분기에 22.8%를 기록했다. 다만, 2분기(25.1%)보다 2.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마이크론그룹도 2분기 11.4%에서 3분기 10.6%로 점유율이 소폭 내려갔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D램 매출 증가율(22.4%)은 시장 전체의 전 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16.8%)보다 높고, 경쟁사인 SK하이닉스(6.0%), 미국 마이크론그룹(8.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이후에도 세계 최초 '8GB 모바일 D램' 등을 앞세워 주도권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10나노급 16Gb(기가비트) LPDDR4 기반 8GB 모바일 D램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측은 "10나노급 설계 기술과 독자 개발한 저전력 기술을 적용해 기존 20n급 4GB 모바일 D램보다 용량은 2배, 단위 용량당(GB) 소비전력 효율도 두 배가량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블프' 호황에 디스플레이 패널가 상승세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시즌을 맞아 디스플레이 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TV 등 세트업체들의 재고 소진에 따른 축적 수요가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탄 패널 가격이 더욱 오르고 있다.

25일 시장조사업체 윗츠뷰(Witsview)에 따르면 21일 기준 TV 패널의 평균 가격은 11월 상반월 대비 2.8% 상승한 175.2달러를 기록했다. 모니터 패널과 노트북 패널 평균가격 역시 같은 기간 각각 0.2% 오른 68.9달러, 0.5% 상승한 32.4달러로 집계됐다.

패널 가격 상승세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등 연말 쇼핑시즌을 맞이해 세트 업체들의 TV, 노트북 등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패널 재고를 축적하려는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일부 패널 업체가 기존 LCD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대형 패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패널 공급량 상승이 억제되는 상황이다.

패널 가격 상승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생산 중단에 따라 시장 전반에 재고율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 업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당분간 가격 하락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아빠·엄마 손잡고 '용궁 나들이'

대표 아쿠아리움 3곳 비교해보니

아쿠아리움은 어른들에게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는 신기함을 주는 곳이다. 잠실롯데, 63갤러리아, 신세계 동대구 아쿠아리움은 수많은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공연 등 문화와의 연계, 관람객들의 체험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종합레저 문화공간 역할을 한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서울 잠실에 도심 최대 규모로 오픈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압도적 규모감을 자랑한다. 전체면적 1만1240㎡(3400여평), 5200여 톤의 수조 규모, 650종 5만5000여 마리의 해양생물과 840m에 이르는 관람 동선은 단연 도심 최대 규모다.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자리한 '도심 속 수중 테마파크'로 국내 아쿠아리움 최초로 벨루가를 상시 전시한다.

이밖에 산천어, 바다사자, 철갑상어, 펭귄 등 강과 바다 그리고 남극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해양생물 5만5000여 종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또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840m에 이르는 관람 동선, 13개 테마로 생태 흐름에 따라 관람객 동선을 설계해 1만여 마리 해양생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차별화를 두고 신경 쓴 부분은 국내 최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650종 5만5000여 마리 '최대 규모'
30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한화 아쿠아플라넷 63

'원조 수족관' 30년 만에 리뉴얼 오픈
프로젝션 매핑… 특화 전시기법 도입

신세계 동대구 아쿠아리움

국내 첫 옥상설치 수족관 내달 개관
'360도 서라운드 뷰' 은어 수조 눈길

국내 아쿠아리움은 평균적으로 6가지가량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국내 최다 3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순히 해양생물을 관람하는 곳이 아닌, 체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양생물을 느끼고 알아가는 배움의 장 역할을 한다.

◇신세계 동대구 아쿠아리움 = 신세계백화점이 12월 오픈하는 대구 신세계(이하 대구점) 아쿠아리움은 국내 최초 옥상에 설치된 파격적인 수족관이다. 국내 백화점 최초로 들어서는 신세계 백화점 아쿠아리움은 전체 면적 1600평 규모로 최대한 오래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 동선만 약 800m에 이른다. 신세계 대구점 아쿠아리움은 국내 최초로 건물 최상층부인 9층에 구성된 것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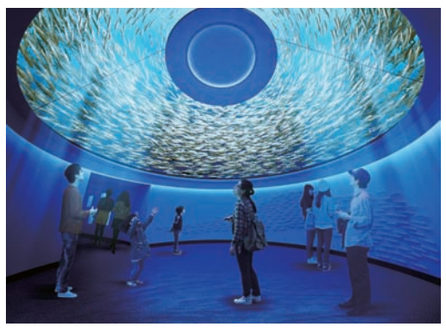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샤크 브릿지'는 상어 수조 위에 그물로 만든 다리를 만들어 고객들이 지나가며 스릴과 함께 상어를 직접 볼 수 있게 하고, 머리 위 천장에서 360도의 서라운드 뷰로 은어의 군무를 감상할 수 있는 '360도 은어수조'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또한, 2층 높이의 오두막집에서 아이들이 앵무새 등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트리하우스', 야외공연장과 야외 테마파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상전망대' 등 새롭게 도입되는 콘텐츠로 가득하다. 이밖에 약 200여 종 2만 마리가 전시되며 국내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바다의 인어 '매너티'와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등이 고객들과 만난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63 = 전체 면적 3100㎡, 수조규모 약 1000톤에 250종·3만여 마리의 생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63은 카페, 포토스튜디오, 기프트숍과 함께 고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63은 63씨월드를 30년 동안 운영하며 축적된 아쿠아리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젝션 매핑과 같은 특화 전시기법을 도입한 전시 콘텐츠와 머메이드 수중공연과 같이 예술성 및 영상요소를 강화한 공연 콘텐츠, 국내 유수의 재즈클럽과의 제휴를 통한 재즈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보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63은 아쿠아리움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 라인을 설정하고 수조별 캐릭터 생물들로 스토리텔링을 진행한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63은 지하 2층 건물로 이루어져 관람객들은 입구에서 '원홀'로 빠져드는 영상과 함께 우리나라 토종 어종들을 볼 수 있는 '아쿠아밸리', 수달생활을 볼 수 있는 '수달플라넷', 아마존강에 서식하는 어류들과 각종 수초가 어우러진 '아쿠아 가든'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한화 아쿠아플라넷63' 인어 공연.


'신세계 동대구 아쿠아리움' 은어 수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교육체험 프로그램.

실적부진·그룹수사… '겹악재' 롯데리아

외식브랜드 경쟁 격화 영업이익 급감
상장 추진 밝혔지만 '실적 회복' 관건

상장 검토를 앞둔 롯데리아가 경쟁사들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고심 중이다. 점포수는 많지만 시장 경쟁의 격화로 실질적인 1등 브랜드가 없는데다 롯데그룹의 연이은 압수 수색으로 상장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와 롯데리아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롯데리아의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세에 있다. 롯데리아의 매출 추이(별도기준)를 보면 2013년 9755억 원에서 2014년 9871억 원, 2015년 9601억 원으로 소폭 하락세에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 규모는 2013년 528억 원에서 2014년 417억 원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134억 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실적 역시 3분기 말 누적 매출은 8486억 원, 영업이익은 140억 원으로 작년 영업이익 규모는 넘었지만 400억~500억 원대의 예년 실적을 회복하긴 어려워보인다.

1979년 설립된 롯데리아는 국내 최초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롯데그룹 내 외식사업을 전담하고 있다.'롯데리아','엔제리너스','T.G.I.F','크리스피크림도넛','나뚜루'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리아의 양대 브랜드 중 하나인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는 올해 매장 수가 1300여 개로 3년 동안 4.1% 증가했다.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도 연말까지 900여 개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내 1000호 점을 돌파할 예정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롯데리아는 접근성에 비해 만족도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수제버거 열풍으로 쉐이크쉑과 저가를 내세운 맘스터치까지 경쟁 상대로 떠오르면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롯데리아의 이용 만족도는 50.8%로 버거킹(72.9%)과 맥도날드(6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었다. 엔젤리너스도 커피 브랜드 평판에서 커피전문점 업계 1위인 스타벅스에 수달간 밀리고 있다. T.G.I.F와 나뚜루도 최근 2년간 문을 닫는 매장이 많아졌다.

롯데리아는 롯데그룹이 상장을 추진하는 계열사 중 한 곳으로 역시 실적 회복이 필수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존 호텔롯데 외에도 코리아세븐,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24일 연이은 롯데그룹의 검찰 수사로 이르면 내년 예정이었던 호텔롯데의 상장 시기가 늦춰질 것 아니겠느냐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쇼핑의 핵심사업부의 영업력 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 사업부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인 버거킹 재팬에 대한 투자가 반영돼 장부에 손실이 난 것일 뿐 다른 실적은 양호하다"며 "롯데리아 외식 브랜드들이 미래형 매장과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등 소비 불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이젠 편의점에서 BMW 빌려타세요"

CU, 카셰어링 서비스 수입차로 확대

편의점 CU는 지난 21일부터 카셰어링(Car-Sharing) 서비스 이용 차량을 수입차로 확대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CU는 지난 8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쏘카(Socar)와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CU는 강서구 화곡동의 CU화곡정원점에서 수입 중형차(BMW 520d)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MW 520d는 올 상반기 국내 수입차 전체 모델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인기 차종이다. 점포를 거칠 필요 없이 쏘카 앱을 통해 예약, 결제, 반납하는 방식으로 점포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바로 이용하면 된다.

수입차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관련 업계에서도 최초다. 기존 이용 가능 차량은 국산 소형, 준중형 차종에만 국한됐으나 365일 24시간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은 편의점이 카셰어링 존(zone)으로 활용됨으로써 고객 편의는 물론 차량 보관의 안전성까지 높일 수 있어 수입차로 그 서비스 범위를 넓히게 됐다.



CU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15개 점포에 편의점 카셰어링 서비스를 테스트 도입한 이후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어서다. 약 3개월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CU동숭아트점 등 일부 점포는 동일 입지의 일반 존 차량의 평균 이용 건수 대비 20~30% 높은 수준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여의도 시범’ 재건축 시동 걸었지만…

주민총회, 사업 신탁사로 ‘한자신’ 선정
초과이익환수 유예 기간 내 관리처분
소유자 75% 이상 동의 조건 등 부담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에 시동을 걸었지만, 우려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최근 주민총회를 열어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을 재건축사업 신탁사로 선정했다. 추진위는 내달 초까지 한자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1790가구 규모의 시범아파트는 1971년 준공된 단지로 2000년대 후반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재건축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결정했다.

단지는 재건축 이후 2654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원들과 업계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기간이 예상보다 1~3년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의도 일대에서는 현재 공작아파트도 신탁사들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고 있다. 시범아파트의 이번 신탁방식 추진으로 다른 단지도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사업 추진”이라며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더딘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탁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신탁방식 재건축에 관심을 두는 데는 2018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이 크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유예됐고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문제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내야 하는데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수능 어려우면 명문학군 집값 오른다?

올해 ‘불수능’에 강남 8학군 등 재조명
명문 중학교 배정 가능 지역 관심 높아져
재건축이나 급매 없어도 실거주 중심 거래
‘래미안 신반포’ ‘목동파크자이’ 분양 주목

강남 8학군 등 전통 명문 학군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능시험이 어려워진 데다 올해는 국·영·수 1등급 컷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수능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능이 어려우면 강남 8학군 등 명문 학군 집값이 오르고, 일정한 곳에 안정적으로 주거하는 정주성(定住性)도 높아진다는 부동산 심리가 다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명문 중학교 배정이 가능한 지역은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등학교 학군의 경우 근거리 배정 원칙에서 벗어나 지원제·추첨제로 바뀐 데다 특목고의 부상으로 명문 학군의 의미가 퇴색됐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학부모 사이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필수코스로 여겨지면서 인기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서초구의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1·3 대책 이후 재건축이나 급매 거래가 없지만 실거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강남권 신규 단지 공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녀 진학을 고민 중인 학부모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 인근 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능일인 17일 기준 지난 1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양천구가 11.3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강남구(11.03%), 서초구(9.19%), 강동구(8.78%), 강서구(8.75%), 송파구(8.4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이들 지역은 명문 학군을 갖춘 전통 부촌이자 재건축 호재가 집중돼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분양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높은 교육열을 가진 엄마들 때문에 ‘명문 학군=부촌’이란 등식이 성립돼왔다”며 “강남 8학군, 목동 등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에도 청약경쟁률이 20대 1 수준까지 치솟았고, 반포·압구정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명문 중학교 인근에 분양을 앞둔 주요 분양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삼성물산이 12월 공급하는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가 꼽힌다. 이 단지는 강남 8학군의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신동초·신동중·현대고 등의 명문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그중 신동중은 2015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91.3%로 높다. GS건설이 이달 공급하는 ‘목동파크자이’ 역시 강서3학군에 포함돼 있으면서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목일중, 봉영여중 등이 가깝다는 점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명문중학교 인근 분양단지
※자료 : 각 건설사

단지명(위치)	전용면적(㎡)	총 가구수(일반분양)	분양시기	시공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52번지 일대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49~132	475(146)	12월	삼성물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71-61 (목동파크자이)	84·94T	356(356)	11월	GS건설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일원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84~99	1774		대우건설
광주 동구 용산자구 2블록 (광주 용산자구 리슈빌)	76~114	820		계룡건설





표류하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 고가월세 논란에 준월세로 바꿔
사업자 측은 “수익성 저하된다” 난색
올 2만5000가구 공급 약속 물건너가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고가 월세 논란으로 서울시가 준월세 방식으로 운영계획을 바꾸면서 사업자 측과의 임대료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연내 2만5000여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를 1달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9월 대중교통 역세권에 인접한 지역에 2030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강로2가와 충정로3가, 강남구 신논현역, 강서구 화곡역, 마포구 합정역 인근지역을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 안에 2만5852가구 공급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시범사업지로 먼저 선정됐던 충정로3가와 한강로2가 역시 이달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간의 임대료 협상 과정이 끝나지 않아 사업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 공람 이후 임대료와 관련해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통해 최초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 서울시가 서로 표준협약서를 체결한다.

문제는 역세권 땅값이 비싼 탓에 서울시가 임대료의 30%를 보증금으로 받는 준월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당초 임대료를 모두 월세로만 채울 계획이었으나, 고가 논란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준월세로 변경할 경우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이다 보니 사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제약이 생기면서 양측 간의 임대료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지부진한 진행속도와 다르게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부지에 한해 용도지역 상향과 세제 혜택, 사업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정경진 기자 jungkj@

‘영통 아이파크 캐슬’ 모델하우스 오늘 개관

2945가구…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4구역 1·2블록에 들어서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영통 아이파크 캐슬’은 총 2945가구 규모로 1블록은 지하 1층~지상 27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05㎡ 1783가구다. 2블록은 지하 1층~지상 24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116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망포4도시개발지구는 수원의 업무단지인 삼성디지털시티와 붙어 있다. 삼성디지털시티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연구단지, 삼성제조기술센터 등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이 들어서 있다.

교통여건의 경우 분당선 망포역을 이용해 수원역까지 10분, 판교까지 30분대, 서울 강남까지 1시간 내 도달할 수 있다. 덕영대로와 인접해 자가용 이용 시 타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쇼핑시설을 비롯해 박지성 축구센터 등의 체육시설도 위치하고 있다.

망포4지구 부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 망포초교를 비롯해 잠원중학교도 위치해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4개 라인으로 구성된 수영장(1블록)과 실내체육관이 조성된다.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도 들어오며 키즈룸과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네덜란드 대표 조경설계가 로드베이크 발리옹이 조경 설계에 참여해 단지 내 유럽 스타일의 녹지와 잔디마당, 외부 커뮤니티 공간 등이 꾸며진다.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1블록과 2블록이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블록이 내달 8일, 2블록이 9일 이뤄진다. 계약은 같은 달 14~16일 3일간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394번지(수원 시외버시터미널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jungkj@



현대산업개발의 ‘영통 아이파크 캐슬’ 투시도.

LG U+

"유튜브를 TV로 크게 보니
함께 웃을 일이 늘었어요!"

[이른둥이 서혜의 리얼스토리, 유튜브에서 **유플러스TV**를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tv

[유아인기]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902), **[뷰티인기]** 씬님(903), **[게임인기]** 대도서관TV(904), **[예능인기]** 영국남자(905), **[음악인기]** SM Town(906)등 32개 채널
▶4K UHD 셋톱박스 이상이면 유튜브채널을 실시간 채널처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채널 변동 가능) ▶자세한 상품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http://www.uplus.co.kr

가입문의101

“美기업 유턴” 압박 강도 높이는 트럼프

에어컨업체 캐리어 멕시코 이전 방침에 “엄청난 세금 부과”
포드 멕시코 이전 막고 애플 생산라인 이전땐 稅 혜택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 해외 공장의 미국 유턴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겠다는 에어컨 업체 캐리어의 방침을 철회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캐리어를 미국에 남게 하려고 추수감사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진전을 보고 있다”고 자랑섞인 트위트를 남겼다. 이에 대해 캐리어는 자사 트위터에 “트럼프의 정권인수팀과 회동했으며 차기 정부와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이 시점에 발표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캐리어는 올해 초 인디애나 공장을 2019년까지 멕시코 몬테레이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미국 내 일자리 1400개가 사라지게 된다. 캐리어의 결정에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비난 여론이 퍼졌다. 트럼프도 지난 4월 “캐리어의 멕시코산 제품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 회사 측이 24시간 내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미국에 남겠다고 애원하게 할 것”이라며 “공장은 인디애나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미국 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일주일 만에 두 번째다. 트럼프는 지난주 포드자동차가 켄터키 주의 링컨 MKC 생산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지 않도록 설득했다고 자랑했다. 포드는 북미 소형차 생산라인을 멕시코로 옮길 계획은 있었으나 링컨 MKC 공장은 애초부터 이전 계획이 없던 곳이다. 포드는 이런 트럼프의 트위트에 반박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에 포드 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마크 필즈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9월 기자들에게 “우리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며 “포드는 미국 최대 승용차·트럭 생산업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중국에 생산을 위탁하는 애플도 트럼프의 유턴 압박에서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는 22일 뉴욕타임스(NYT) 기자간담회에서 “팀 쿡 애플 CEO로부터 당선 축하 전하를 받았다”며 “당시 통화에서 애플이 미국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쿡 CEO에게 애플이 중국이나 베트남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내게는 굉장한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하면 아주 많은 세금 감면을 해 줄 것이고 당신들은 매우 만족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낮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규제는 중국이 가진 매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풍부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인력 등 중국의 역동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애플 하청업체는 당시 신제품인 아이폰 6S 생산을 위해 무려 1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너무 대조되는 지구촌 두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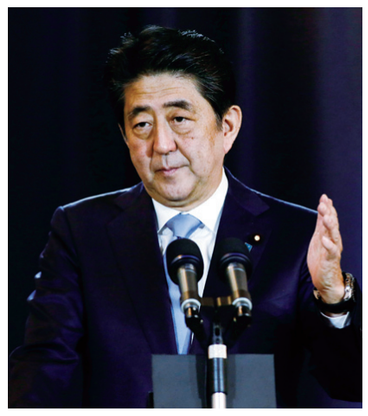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린 제90회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인파가 몰려 축제를 즐기고 있다. 같은 날 이라크 카제르 난민촌에서 어린 소년들이 모닥불에 손을 쬐고 있다. 이날 이라크 중부 도시 힐라의 한 주유소에서는 트럭을 이용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최소 73명이 사망했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뉴욕·모술/AFP·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회담’ 실속 못챙긴 아베

美 TPP 탈퇴 공식화 수순
“트럼프 번복시킬 확신 없다”
직접 잔류 설득 실패한 셈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해 주목받았던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아베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참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특별위원회 증언에서 “대통령 취임 첫날 TPP 탈퇴를 통보하겠다고 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을 번의(飜意)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TPP 특별위원회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 결과를 처음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17일 아베 총리는 미국 뉴욕의 트럼프 자택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를 만났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두 사람의 회동 자체만으로 고무적이었으며, 아베 총리가 회담 후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확신했다”고 말하면서 TPP 협상도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21일, 트럼프 당선인이 갑작스럽게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일본 민진당의 렌호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TPP 특별위원회에서 뉴욕 회동과 관련해 아베 총리를 집중 추궁했다.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확신한 이유가 뭐냐”는 렌호 대표의 질문에 아베 총리는 “현직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대로 경의를 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대선 기간 거세게 비판해온 오바마 정권에 대해 트럼프가 일정 배려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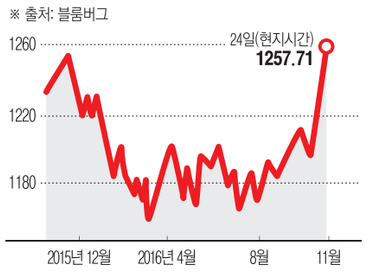
트럼프와의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초점이 되고 있는 TPP에 대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 생각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TPP 탈퇴를 표명해온 트럼프에게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TPP의 중요성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의 회동 성과에 대해 “안타깝다”며 실속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은 9월 유엔 총회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패한 힐러리 클린턴하고만 회담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가장 바쁜 시기에 다른 정상은 제쳐두고 나만 만났다”며 트럼프와의 회담이 성사됐다는 점만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달러·리라(터키) 환율 추이
단위: 리라



블룸버그달러스팟인덱스 추이
※ 출처: 블룸버그



시작도 안한 ‘블랙프라이데이’ 벌써 대박 예감

추수감사절 당일 전자상거래 매출 20억 달러 돌파 예상

미국 최대의 쇼핑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수감사절 당일 이커머스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약 2조3500억 원)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 세계 100대 소매업체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중 80%의 판매실적을 파악하는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ADI)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 11시간 만에 3억3600만 달러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20억 달러는 거뜬히 넘어설 전망이다.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매출은 작년보다 15.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미소매연합회(NRF)는 추수감사절 연휴 나흘간 온·오프라인 쇼핑객 수를 1억3740만 명으로 전망했다. 작년에는 1억3580만 명이었다.

모건스탠리는 투자 노트에서 “올해 연휴 세일 기간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는 아마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아마존은 다른 어떤 업체들보다 새로운 모바일 앱 도입에 집중했고, 그 결과 다른 소매업체들의 2.7배에 달하는 모바일 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늘어난 것에 대비한 투자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결실을 볼 것이라는 의미다. 아마존은 앱 사용자가 실제 물건 구매로 이어지도록 공을 들였다. 다만 PC보다 모바일로 아마존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많더라도 정작 모바일 구매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ADI의 분석이다.

NRF의 조사 결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쇼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는 전년 58.7%에서 올해 59%로 근소하게 늘어났다. 또 55.7%는 이미 쇼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NRF는 올해 연휴 기간 지출이 작년보다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기간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풀려 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투자 노트에서 작년보다 올해 겨울이 추울 것이라는 예상도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중국 안방보험 자금 바닥?… 해외 첫 채권 발행

공격적 M&A로 인한 자금난 제기… 경영 투명성 강화 기대도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안방보험은 크레디트스위스와 골드만삭스를 주간사로 선정해 해외에서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한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안방보험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 보험 사업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임에는 분명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안방보험은 그동안 차이나머니의 힘을 과시하며 공격적 인수·합병을 이어갔다. 2014년 말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의 최고급 호텔 월도프 아스토리아를 19억5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에 매입해 세계를 놀라게 했고, 벨기에 간판은행인 텔타로이드은행과 피데아보험을 차례로 사들였다.

지난해 1월에는 중국 민생은행, 2월에는 네덜란드 보험사 비밧을 각각 인수했다. 안방보험은 한국의 동양생명도 지난해 2월 1조22000억 원에 인수했다. 올해는 스트래티지호텔&리조트를 55억 달러에 사들였다. 22일에는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소유한 일본 부동산을 2500억 엔에 사들이기로 했다.

활발하게 기업 쇼핑을 하던 안방보험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금이 바닥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는 올해 초 중국 기업 부채가 과도하다며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저우샤오촨 총재는 “금융 분야에 기업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M&A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외 채권 발행을 계기로 안방보험의 경영에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뢰할 만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투자자들은 스탠더드앤푸어스(S&P)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을 선호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신흥국 통화가치 추락에 ‘비명’

터키 리라화 달러 대비 사상 최저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초강수
중국 위안화·인도 루피화도 최저

신흥국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터키가 3년 만에 전격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각국의 환율 방어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터키중앙은행은 24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를 종전 7.5%에서 8.0%로 0.5%포인트 인상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터키중앙은행은 1일물 대출금리도 8.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터키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14년 1월 이후 거의 3년 만이다.

미국 달러화당 터키 리라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터키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리라화 약세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며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금융긴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7일물 레포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인상폭은 전망치의 배에 달했다. 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전날 연설에서 낮은 금리를 요구해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중앙은행이 행동을 감행해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리인상에 달러화당 리라화 가치는 최대 0.8%까지 올랐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3.4494리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국 위안화와 인도 루피화 가치도 최근 미국 달러화에 대해 사상 최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필리핀 페소화와 말레이시아 링깃화도 급락해 페소화 가치는 2008년 이후, 링깃화는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도 달러화 강세 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인덱스는 장중 102.05까지 치솟으며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평가하는 블룸버그달러스팟인덱스는 2004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경희궁 롯데캐슬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속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6. 11. 1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11. 25.(금요일)입니다. (무주택기간, 나이, 자격 주산정 등에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일정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투자제한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청약통장 가입금액 납입인정금액 및 청약가능 지역이 제한됩니다.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대상에서 제한되오니 청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1순위 자격을 세대주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인 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 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방법, 나이에 따른 청약가능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2순위 청약가입은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일에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금액은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횟수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일에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방법, 나이에 따른 청약가능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입주자로 될 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일이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방법, 나이에 따른 청약가능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으로 청약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제한받지 않는 민영주택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가점제 적용대상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 공시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 공시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한밤중 열나는 아이, 당황말고 앱 켜세요”

신재원 모바일닥터 대표, ‘이민화 의료 창업상’ 첫 수상
영유아 체온 측정주기·해열제 권장용량 등 해결책 제시
“빅데이터 활용 증상 입력하면 진단해주는 앱 개발 계획”



“체온이 올라 응급실을 찾는 아이 10명 중 7~8명은 사실 병원에 올 필요까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두 응급실로 몰린다는 게 얼마나 사회적 낭비입니까?”

지난 24일 대한의학회가 시상한 ‘제1회 이민화 의료 창업상’ 수상자인 신재원〈사진〉 모바일닥터 대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소아 열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열나요’를 만들었다. 이민화 의료창업상은 의료인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명예이사장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처음 시상됐다.

신 대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생활을 하다가 약 6년간 방송사에서 의료전문 기자로 활약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의사에 비해 사회 변화를 좀 더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모바일 세상’이 도래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이 분야에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모바일닥터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만든 ‘열나요’는 부모가 입력한 영유아의 체온을 체크해, 고온 증세를 보일 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모바일 앱이다. 자녀가 고열이 날 때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는 체온 측정을 너무 잦게 하거나, 해열제를 너무 적게 먹이는 일이다. 심지어 ‘젖은 양말을 신겨야 한다’와 같은 잘못된 민간요법을 신뢰하는 예도 있다. ‘열나요’는 전문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통해 체온 측정 주기를 알려주며, 해열제 권장 용량을 정확하게 처방해 준다.

“자녀에게 열이 있다고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응급실만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의사 시절을 술회한 신 대표는 대부분 집에서 간단한 처방으로 체온을 내릴 수 있다고 권고한다.

단순하게 해열제로 처치할 수 있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하면 혈액 검사 등으로 최소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부과된다. 이는 응급실 인력의 낭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낭비라는 게 신 대표의 지적이다.

신 대표는 현재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을 진단해주는 다양한 앱을 개발 중이다. 신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증상만 입력하면 가장 확률 높은 병 3가지를 진단해주는 앱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면서 “어려운 일 같지만 앞으로 3~4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바일 헬스케어의 선구자로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정웅 기자 cogito@


최영상 메타넷 대표이사


윤용암 삼성증권 대표이사


오광성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박동우 무대미술가


송자 가이드스타 이사장

윤용암 삼성證 대표 등 ‘연세상경인상’

내달 9일 ‘동문의 밤’서 시상식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는 다음 달 9일 남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6 연세 상경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약 800여 명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경영대학 동문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연세상경인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자랑스러운 연세상경인상 산업경영부문 수상자로는 최영상 메타넷 대표이사 회장과 윤용암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이 선정됐다. 사회봉사 부문에는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학술문화부문에는 박동우 무대미술가, 공로상에는 송자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이 받는다.

또 연구 업적이 우수한 상경대학·경영대학 교원에게 시상하는 초헌학술상은 상경대학 허현승 교수와 경영대학 임일 교수가 수상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친환경 디젤, 폴크스바겐 사태로 누명”

배충식 교수 ‘오토모티브 포럼’
정부 저공해차 강화 정책은 성급



24일 열린 KAIDA 오토모티브 포럼에서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가 ‘디젤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폴크스바겐 사태로 디젤 엔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는 게 사실이지만, 디젤에 대한 감정적 대응·규제는 자제해야 한다.”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연 ‘오토모티브 포럼’에 참석해 “디젤 엔진은 향후 30년 이상 에너지 변환기술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젤 자동차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국내외 업계·학계 관계자들은 디젤 자동차의 현황을 짚어보고, 디젤차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배 교수는 “폴크스바겐 사태로 친환경 디젤엔진 기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형성됐다”며 “유한한 화석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젤엔진이 사장되어야 하는 기술로 오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경유차 저공해차 인증 기준을 강화한 시행규칙을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에 대해 “디젤에 대해 감정적 대응과 규제를 하는 느낌”이라며 “에너지 안보·경제성·친환경성·기술성 측면에서 비춰볼 때 이건 국가 경제 차원에서 거의 자해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광민 연세대 교수 역시 “모든 디젤 자동차가 ‘오염을 많이 내뿜는 엔진’이라는 누명을 썼다”고 전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H.O.T 문희준


크레용팝 소율

문희준·소율 내달 결혼 연예계 첫 ‘아이돌 부부’

‘원조 아이돌’ H.O.T 출신의 문희준(39)과 크레용팝의 소율(26)이 내년 2월 결혼한다.

문희준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24일 “문희준이 크레용팝의 소율과 2년 전부터 같은 분야에서 좋은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며 “결혼은 내년 2월께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사회자, 주례, 축가 모두 정해졌지만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희준은 이날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우리 주니스트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라며 “우리 사이에 또 하나의 변화이지만 저에게 여러분은 항상 먼저이고 소중한 존재임은 변함이 없는 거 아시죠?”라고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문희준과 소율은 13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예계 최초의 ‘아이돌 부부’가 된다. 이재영 기자 ljy0403@

타이후이 JP모건 亞수석전략가가 말하는 글로벌시장 전망

“美달러강세·금리인상…한국은 단기적 타격”

트럼프 당선으로 인플레 기대
유럽·일본은 저금리 기조 유지
신흥국서 자금 엑소더스 불구
장기적 펀더멘털 개선 낙관적


타이 후이(Tai Hui) JP모건자산운용 아시아 수석 시장전략가는 24일 미국의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이 한국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이머징 국가(신흥국)에는 두 가지 단기적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의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타이 후이(Tai Hui) JP모건자산운용 아시아 수석 시장전략가는 24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글로벌 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흥국의 펀더멘털 개선을 신뢰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한국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개방형 경제의 특성을 이유로 “한국이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선 승리로 감세와 인프라 지출 확대 기대감에 기대인플레이션 증가세가 더욱 증폭됐다”며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를 2~3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과 반대로 내년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후이 시장전략가는 “ECB와 BOJ 정책 기조가 이른 시일 안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동리목월문학상’ 소설 이순원·시 문인수

동리목월기념사업회는 최근 ‘2016 동리목월문학상’에 소설가 이순원 씨, 시인 문인수 씨를 선정했다.

동리목월문학상은 경주 출신 소설가 김동리(1913~1995)와 시인 박목월(1916~1978)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 6시 경주 보문단지 ‘The-K’ 경주호텔에서 열린다. 상금은 각각 7000만 원. 이순원 씨는 1985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서 ‘소’로 등단한 뒤 현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허균작가문학상, 녹색문화상 등을 받았다. 창작집 ‘그 여름의 꽃게’, ‘말을 찾아서’, ‘첫눈’, 장편소설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 ‘삿포로의 여인’ 등을 냈다.


소설가 이순원씨.


시인 문인수씨.

문인수 씨는 1985년 ‘심상신인상’으로 등단해 대구문학상, 금복문화예술상, 미당문학상, 대구시문화상 등을 받았다. 시집 ‘뿔’, ‘홰치는 산’, ‘동강의 높은 새’, ‘배꼽’ 등이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한양 새 사장에 원일우



한양은 원일우(59·사진) 전 금호산업 대표이사를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원 신임 사장은 신일고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대우건설 건축사업 본부장, 개발사업 본부장(부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 워크아웃 중이던 금호산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이끌어 냈다.

한편 2년여가량 한양을 이끌었던 한동영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한양 관계자는 “신임사장의 추진력과 경영 노하우로 한양의 핵심 사업인 묘도 LNG 허브와 바이오 에너지 개발, LPG 유통,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솔라시도) 등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인사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윤헌주 ◇**고위공무원 전보** △과학기술정책관 용홍택 △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한국중부발전** ◇**1직급(을) 승격** 예정 △감사실 종합감사부장 이달재 △인재경영처 업무지원부장 김경수 △상생조달처 계약관리부장 나판균 △정보보안혁신처 ICT기획부장 이진규 △발전처 에너지신사업부장 노웅환 △안전품질실 품질경영부장 윤철수 △신성장사업단 사업운영관리부장 이성재 △신성장사업단 IDN PT.CPS 부장 강장팔 △보령화력본부 기술지원처 환경관리부장 홍훈식 △보령화력본부 제2발전소 보일러기술부장 서남석 △보령화력본부 제3발전소 기계기술부장 임승관 △서울화력본부 대외협력부장 조성준 △신보령화력건설본부 공사관리부장 김윤규 △신보령화력건설본부 건설관리실 건축부장 박형근 △신보령화력건설본부 시운전처 보일러기술부장 정의문 △세종천연가스발전본부 발전운영실장 변근희 ◇**2직급 승격 예정** △감사실 오영철 △기획조정처 안병민 조태환 △인재경영처 이덕희 김덕채 △상생조달처 백승민 △정보보안혁신처 박홍재 △발전처 강희성 김재식 나충하 김문수 △건설처 김민수 김지옥 △신성장사업단 이영찬 천진수 강희석 △보령화력본부 남석기 최유신 한종렬 △서울화력본부 김종윤 △서천화력본부 김지성 조성복 김도균 △신보령화력건설본부 김득수

◆**손해보험협회** 〈승진〉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고봉중 〈전보〉 △시장지원부장 직무대리 홍군화 △경영지원부장 직무대리 신종혁

◆**삼양홀딩스** 〈승진〉 ◇**사장** △CTO 김영환 ◇**상무** △CPC장 김재홍 〈보직변경〉 ◇**상무** △SCM실장 송규훈

◆**삼양사** 〈승진〉 ◇**부사장** △화학그룹장 박순철 △식품BU장 송자량 ◇**상무** △AM BU 영업총괄 이운익 △식품BU 인천1공장장 서영규 〈보직변경〉 ◇상무 △AM BU장 김도 △식품BU 영업총괄 최낙현 △컬처&글로벌총괄 이진용 △식품BU 인천2공장장 남주헌

◆**삼양패키징** 〈승진〉 ◇**부사장** △대표이경섭 ◇**상무** △영업총괄 박찬일

◆**삼양바이오팜** 〈승진〉 ◇**상무** △MD사업총괄 이재두 〈보직변경〉 ◇**상무** △의약사업총괄 최호준

부음

▲**임동규**(한서기업 대표이사)·**경호**(세미 대표이사)·**병인**(SM팩 이사)·**병헌**(세원에셋 대표이사)씨 부친상, **최수환**(전 한국투자증권 감사)·**이율국**(전 한화63시티 대표이사)씨 장인상 = 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2258-5940

▲**한건희**(전 육군본부 공병감·전 농업진흥공사 사장)씨 별세, **재용**(독일 지멘스 근무)씨 부친상 = 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02-3410-3151

▲**이현정**(엔엑스터인터내셔널 대표이사)씨 부친상 = 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3410-6902

▲**김선구**(로이비쥬얼 이사)씨 모친상 = 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70-7816-0235

▲**정수익**(자영업)씨 부친상, **이수영**(새누리당 통일수석전문위원)씨 장인상 = 24일, 강원 속초 보광병원, 발인 26일 오전, 033-633-7444

프로야구 FA 100억 시대 연 최형우

삼성서 기아로… 4년 계약



한국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 시대가 열렸다.

KIA 타이거즈는 24일 삼성 라이온즈에서 FA로 풀린 외야수 최형우(33·사진)와 4년간 100억 원(계약금 40억 원, 연봉 1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최형우는 지난해 박석민이 삼성에서 NC 다이노스로 이적하면서 받은 96억 원을 넘어 FA 계약 최고액을 기록했다. 동시에 첫 100억 원 FA 계약의 주인공이 됐다.

최형우는 올 시즌 138경기에 출장해 519타수 195안타 타율 0.376, 144타점을 기록하며 타격 3관왕을 달성했다.

최형우는 “KIA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6화 11월의 파비안느 ⑲

창문으로 달려든 눈이 유리창에 닿자마자 녹아버린다.

이혜진이 길 건너 슈퍼에서 나왔다. 탄광에서 사용하는 침목을 가득 적재한 트럭이 느릿하게 이혜진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혜진이 어깨며 머리카락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미안해서 어쩌지?"

준호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혜진 옆으로 가서 어깨와 등에 덮인 눈을 털어주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눈의 감촉과 스웨터의 따뜻한 감촉이 동시에 전해졌다.

"슈퍼에서 라디오로 들었는데 폭설주의보가 내렸대요. 눈이 엄청 올 것 같아요."

이혜진이 준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비닐봉지에서 오징어를 꺼내며 말했다.

"원래 캡틴큐 안 마시잖아?"

"오늘 첫눈 오는 날이잖아요. 과장님이 매일 마시는 술이 어떤 맛인지 마셔 보고 싶어요."

이혜진이 난로 위에 오징어를 올려놨다. 탕비실에 가서 종이컵 두 개를 들고 오며 웃었다.

준호는 오늘 장성의 모든 여자들이 독한 술을 마시기로 작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쓴웃음을 웃었다.

"제가 못 마실 거 같아요?"

이혜진이 준호가 소리 없이 웃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별로 좋은 맛은 아닌데?"

"술을 맛으로 마셔요?"

"취하는 맛으로 마시지."

준호가 종이컵에 캡틴큐 몇 모금 정도를 따라서 내밀었다.

"어머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혜진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종이컵을 준호 앞에 내밀었다.

"이 술 독한데?"

준호가 몇 모금을 더 따라줬다. 난로에서 오징어를 가져와 신문지 위에 내려놨다.

"아까, 첫눈이 오면 뭐가 생각나는지 물었잖아요."

이혜진이 오징어를 잘게 찢으며 물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가 보죠?"

"우리가 석공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는 금천에 살았잖아요?"

"태백산 올라가는 쪽 동네?"

"네, 그쪽…우! 이렇게 맛없는 술 처음 마셔 보네."

이혜진이 캡틴큐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얼굴을 찡그렸다.

"맥주 하나 사다 줄까요?"

"첫눈하고 맥주는 왠지 안 어울려요. 소주라면 모를까?"

준호는 이혜진의 말에 일어섰다.

눈은 신발이 파묻힐 정도로 쌓였다. 저녁이면 제법 많은 눈이 쌓일 것 같았다.

눈이 많이 쌓이면 황지에 못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지나간 자리는 시커먼 바닥이 드러나 있다.

이혜진은 금천은 눈이 많이 내리면 장성까지 내려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어느 때는 눈이 허리까지 쌓일 때도 있다는 말을 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첫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다.

먹이를 찾는 꿩들이 마당까지 날아왔는데 지붕에서 떨어진 눈덩이 때문에 눈 속에 파묻혔다.

그걸 잡아서 온 식구가 저녁에 꿩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태백산에 등산을 온 대학생 오빠 세 명이 집에서 눈이 녹을 동안 지낸 적이 있었다.

그중에 영문과 다니는 오빠가 얼굴도 잘생긴데다 마음도 착했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영문과 다니는 오빠와 편지를 주고받았었다.

한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군대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편지가 끊어졌다.

지금도 첫눈이 오면 가끔 그 오빠가 생각이 난다고 말하며 웃었다.

준호는 고등학교 1학년 봄에 '학원'이라는 잡지에 시를 투고했었다고 말했다.



투고를 하고 나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편지 한 통이 왔다. 예쁘게 쓴 여학생이 보낸 편지라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봉투를 뜯었다.

놀랍게도 여학생은 지난 4월호 '학원'에 게재된 시를 읽은 후에, 거기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그날 저녁 거의 밤을 새워서 답장을 썼다. 이튿날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을 맞으며 우체국에 편지를 부치러 갔다.

"네가 이준호냐? 마침 잘 왔다. 너한테 웬 편지가 이렇게 많이 왔냐?"

편지봉투에 붙어 있는 우표에 소인을 찍던 직원이 마침 잘 왔다는 얼굴로 돌아섰다.

놀랍게도 끈으로 묶은 25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나 혼자 답장을 모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고 갔더니 같은 반 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더라구요."

"어머머, 진짜?"

"내 기억으로는 그 후로도 편지가 300통 정도는 온 것 같아요. 나중에는 미안하더라구요. 그 편지를 상자에 모아두었는데, 군대 갔다 온 후에 보니까 그 상자가 없어졌더라구요."

"몇 명하고 펜팔을 했는데요?"

이혜진이 몇 잔 술에 빨갛게 물든 얼굴로 물었다.

"한 명은 꽤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난로열에 후끈후끈했다. 준호는 오징어를 잘근잘근 씹으며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창문 밖을 바라봤다.

투고를 하고 나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편지 한 통이 왔다. 예쁘게 쓴 여학생이 보낸 편지라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봉투를 뜯었다.

놀랍게도 여학생은 지난 4월호 '학원'에 게재된 시를 읽은 후에, 거기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그날 저녁 거의 밤을 새워서 답장을 썼다. 이튿날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을 맞으며 우체국에 편지를 부치러 갔다.

"네가 이준호냐? 마침 잘 왔다. 너한테 웬 편지가 이렇게 많이 왔냐?"

편지봉투에 붙어 있는 우표에 소인을 찍던 직원이 마침 잘 왔다는 얼굴로 돌아섰다.

놀랍게도 끈으로 묶은 25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나 혼자 답장을 모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고 갔더니 같은 반 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더라구요."

"어머머, 진짜?"

"내 기억으로는 그 후로도 편지가 300통 정도는 온 것 같아요. 나중에는 미안하더라구요. 그 편지를 상자에 모아두었는데, 군대 갔다 온 후에 보니까 그 상자가 없어졌더라구요."

"몇 명하고 펜팔을 했는데요?"

이혜진이 몇 잔 술에 빨갛게 물든 얼굴로 물었다.

"한 명은 꽤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난로열에 후끈후끈했다. 준호는 오징어를 잘근잘근 씹으며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들의 탄생 100주년을 생각하며

오늘의 문학산책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윤동주 강연하던 날

나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처음 미국엘 갔다. 지금부터 10년 전쯤 미국 동부 워싱턴디씨와 뉴욕에서 소박한 강연 일정을 가질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천공항을 떠나 일본 도쿄에 들러 나는 일본의 평론가 아이사와 가쿠(愛澤革) 선생을 처음 만났고, 그분과 함께 다시 비행기에 올라 미국을 향했다. 그때 아이사와 선생은 내게 송우혜 원작의 '윤동주 평전'을 번역하는 중이라고 인사를 하였다. 아이사와 선생은 2009년 일역(日譯)을 완성하여 후지와라(藤原)서점에서 두툼하게 책을 출간하였고, 내게도 우정의 표시로 책을 보내주었다. 그 책을 받는 순간, 나는 아이사와 선생이 원저자인 송우혜 선생께 보냈다는 편지의 한 구절을 새삼 떠올리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와 그 생애를 제대로 생각하기를 계속하면 거기에는 역사와 인간에 관한 중요하고 의미 깊은 과제가 잇달아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참다운 생각을 따져야 하는 씨름판(말을 바꾸면 매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윤동주를 둘러싸고 사람들 각각의 참된 목소리가 서로 메아리치는 판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우혜 선생의 '윤동주 평전'은 제가 생각을 진전시키려 할 때 늘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없으면 안 되는 등대입니다."

일본인들의 이 지독한 역설로서의 윤동주에 대한 사랑은 한없이 우리를 아득하게 한다. 어쨌든 이러한 '등대'로서의 가치를 지닌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정음사 초판이 세상에 나온 지도 70년이 다 되어간다. 이런 기억을 떠올리는 까닭은, 그때 워싱턴과 뉴욕에서 아이사와 선생과 내가 하기로 한 강연 주제가 '윤동주'였기 때문이다. 이제 내년이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 된다. 그는 그렇게 '1917~1945'의 생애를 살다가 불멸의 영원이 되었다. 그의 나이 스물아홉이었다.

또 다른 1917년생

그런데 도착한 다음 날 강연을 앞둔 오후에 그곳 교포 문인 한 분이 앨링턴 묘지를 가보자고 했다. 나로서는 특별히 존 F. 케네디가 재클린과 함께 누워 있을 묘역을 육안으로 보고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다다른 깊숙한 곳에 케네디 부부가 누워 있고, 그 묘석에는 케네디의 생몰 연도인 '1917~1963'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두루 알려져 있듯이,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 링컨 컨티넨털을 타고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퍼레이드를 하다가 정오 무렵 오스월드라는 사내가 쏜 총을 맞고 죽음을 맞았다. 케네디는 부인 재클린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던 것이다. 케네디 암살범으로 기소된 오스월드는 그해 11월 24일 아침 텍사스 경찰서 지하에서 잭 루비라는 나이트클럽 경영자의 총에 맞아 암살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피아 소행이라는 설, CIA의 공작이라는 설, 소련이 배후에 있다는 설 등이 떠돌다가 한 광신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그때 재클린은 남편의 피로 얼룩진 옷을 그대로 입은 채 그 옆을 지켰고, 미국은 이 잔혹한 살인에 대해 전례가 없는 추모 열기를 보였다. 존의 장례식은 11월 25일 앨링턴 묘지에서 엄수되었고, 그는 그렇게 미국의 영원한 '젊은 심장'으로 남았다. 그의 나이 마흔일곱이었다.

그때 나는 1990년대 초 케네디 암살 사건을 다룬 올리버 스톤의 영화 'JFK'를 떠올리고 있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이 영화는, 케네디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그 이후 터진 베트남전과 연루하여 해석하였다. 영화는 케네디가 죽지 않았더라면 베트남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결국 케네디의 죽음은 군수산업과 관련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남겼다.

그 영화의 여운이 남아 있던 터라, 존과 재클린의 묘역은 내게 커다란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정작 내게 그 순간 꽂힌 것은, 묘석에 새겨진 '1917~1963'이라는 숫자였다. 그날 저녁 강연할 윤동주와 케네디가 동갑이었기 때문이다. '아, 이들이 같은 1917년생 뱀띠로구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제국주의의 폭력에 희생된 윤동주
죽음 배후에 검은손 보이는 케네디
독재로 비극적 종말 맞은 박정희

세 사람 모두 1917년생 뱀띠
그들은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볼까

또 한 사람의 1917년생

바로 그때 나는 또 한 사람의 1917년생을 생각했다. 어릴 적, 케네디와 동갑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1961년 군사정변 직후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백악관을 방문하여 케네디를 만났다. 마흔다섯의 젊은 두 정상이 회담을 가진 것이다. 박정희는 1963년에 창당된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여 총재에 추대되었고, 그해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다. 여론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자 확보를 위해 한일협정에 조인하였고, 1965년 국회 비준을 거쳐 한일 간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베트남전쟁 파병을 단행하였다.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쟁 파병은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으나 그는 그것을 뚫고 나갔다. 이를 통해 얻은 경제 성과는 보릿고개라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었으며, 지금도 이는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유신시대를 열어 장기집권에 들어섰고, 새마을운동과 녹화사업을 주도하였고, 아내 육영수 여사의 죽음을 경험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부마사태 수습책을 둘러싼 차지철과 김재규 사이의 언쟁 도중 김재규에게 권총으로 피격당해 죽음을 맞았다. 18년 동안의 철권통치가 원치 않은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렇게 '1917~1979'의 길지 않은 생을 마쳤다. 그의 나이 예순셋이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나는 그날 강연 주제를, 그냥 '윤동주'에서 '윤동주와 케네디와 박정희'로 바꾸었다. 동갑내기 세 사람을 통해, '삶/죽음/역사'를 이어볼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들 셋의 공통점은 출생 연도뿐만 아니라, 각기 맞은 비극적 죽음에도 있었다. 윤동주의 죽음에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해온 폭력의 역사가 어른거리고, 케네디의 죽음에는 전쟁을 통해 부(富)를 축적해온 검은손들이 저지른 폭력의 역사가 착색되어 있고, 박정희의 죽음에는 권력과 탈권력의 갈등 관계 혹은 독재의 비극이라는 근대사의 한계가 묻어 있었다. 결국 그날 저녁 나는 '윤동주의 시(詩)'에서 주제를 한국과 동아시아와 세계의 역사로 아득하게 확장하였고, '삶/죽음', '전쟁/평화', '권력/민주주의' 같은 고전적 명제에 대한 사유도 서투르게나마 곁들일 수 있었다.



▲동갑내기인 박정희와 케네디의 만남(1961년 11월)
◀윤동주

내년이면 우리는 윤동주와 박정희와 케네디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윤동주는 지금 소녀상이나 위안부 협정이 주는 여전한 제국의 그림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케네디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몰고 올 '미국 우선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박정희는 딸의 저 벼랑 끝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윤동주의 시가 다시 한 번 귀를 울린다.

>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
>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 '쉽게 씌어진 詩' 마지막 두 연

과연 윤동주가 기다리던 '시대처럼 올 아침'은 눈물과 위안으로 우리를 찾아올까? 'JFK'에서 짐 개리슨 검사가 사자후를 토하는 마지막 대사가 떠오른다. "우리는 어릴 때 '정의'라고 하면 배운 말이 있죠.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죠. 정의는 늘 권력으로부터 심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권력과 싸우는 게 힘들죠." 정의와 권력의 화두가 급류처럼 흘러가는 지금, 다시 한 번 1917년생 동갑내기 윤동주와 케네디와 박정희의 너무도 달랐던 삶과 죽음을 생각해본다. 이들의 탄생 100주년은 과연 어떻게 찾아올까?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어쩌다 싱글
PART1. 자기다운 삶은 '비교급'이 아닌 '절대급'으로 사는 것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PART2. 가까운 미래를 계획하며 나만의 삶 돌보기
PART3. 7人 7色 나를 위한 돌봄 이야기
PART4. 나를 위한 투자 시작해볼까요?
PART5. 美,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PART6. 스스로에게 자격증을 주는 마음 다스리기
PART7. 몸부터 살려라
PART8. 동년기자에게 듣다 최은주·장영희·박종섭·강신영·김종억·최원국 동년기자

브라보가 만난 사람



세상 앞에서 당당한 마임이스트 유진규
힘이 다하는 날까지 무대 위에 서겠다



60세에 시작한 기자로서의 인생 2막, 희망의 증거가 되다
기자 겸 사진작가 '조이스 리', 용감무쌍한 길 위의 여자



"치과의사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죠!"
장영준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

문학관 답사기 | 한무숙 문학관
문화가 흐르는 길 옆, 문학 숙녀의 아지트를 탐방하다
혜화역 4번 출구를 나와 혜화동 로터리에서 길을 건너 3분가량을 걸었다. 무심히 걷고 뛰던 대학로 길 옆. 이 익숙한 거리를 수없이 지나다니면서도 문학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니. 긴 숨을 내쉬고, 무거운 나무 대문을 열고, 그녀와 첫인사를 나눴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이순원의 **세상 풍경** 소설가

소설가가 생각하는 소설쓰기

신춘문예 철입니다. 한국 문단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소설가와 시인을 찾는다는 신춘문예 공고가 신문마다 이미 났습니다. 이르면 12월 초에, 늦으면 12월 중순에 마감합니다. 여기에 당선되는 것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입니다.

시부문은 시인과 평론가가 대개 심사를 하고, 소설은 소설가와 평론가가 함께 심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인과 소설가를 새로 등단시키는 사람들은 그간 많은 활동을 한 권위 있는 시인과 소설가와 평론가입니다.

그런데 시부문과 달리 소설의 경우는 문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소설가를 세상에 내보내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검찰이 발표한 대통령 피의 관련 부분에 대해 대통령의 변호사가 "그건 소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의 문학지망생이 정식으로 소설가라는 이름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또 한 편의 소설을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검찰 주변에서 무슨 새로운 피의 사실이 발표되거나, 신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모두들 "그것은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제가 법리적으로 싸울 일은 없고,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소설에 대한, 소설가로서의 나의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소설가인 나는 소설이다, 아니다에 대한 철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곧 소설 아니냐고 여길 때가 많고, 내가 쓰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야기만 된다면 그것은 곧 소설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설을 쓰기 전에도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이야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척 따져봅니다. 그렇게 쓴 제 소설에 대해서는, 또 대한민국 소설가들이 쓰는 소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이 소설이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으면서 저희들끼리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사나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소설을 쓴다"고 말합니다.

저는 소설가로서 그런 말들이 참으로 거짓 같고, 또 변명으로도 옹색하며, 때로는 그가 변호사로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들이든 그것을 소설에 비유하는 자체가 참으로 경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설 속에는 과연 세상 사람들의 삶이 들어 있기나 하는지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예나 지금이나 소설가로 내가 중시하는 것은 내 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 세상을 살아가며 엮어내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소설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 안에 과연 우리의 삶이 들어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막 나가는 정치소설이라 하더라도 지금 같은 소설은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소설가가 소설 속에 이런 얘기를 지어냈다고 하면 상상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느냐고 혹평을 들을 것입니다.

소설가로서 나는 어떤 소설이든 그 소설 속에 우리 시대의 삶을 그려내는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으면, 있다 하더라도 판박이처럼, 혹은 끝없는 거짓말의 자기 복제 현상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되는 추문에 관계된 이야기라면, 그것이 암만 소설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소설 속에 포함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조리 있게 소설 한 편을 쓰시든지 말입니다.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트럼프 행정부와 금융규제 완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금융규제 완화이다.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 금융규제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금융규제는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행업에 대한 규제가 별로 갖춰지지 않았던 대공황 당시, 특히 주목해야 할 은행이 바로 지금 씨티(Citi)은행의 전신인 내셔널시티(National City)은행이다.

이 은행의 행장이었던 찰스 미첼(Charles Mitchell)은 미국 최대의 상업은행으로 회사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 상업은행의 영역을 벗어난, 투자은행의 영역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즉 그는 끝없이 오르는 주식시장을 활용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까지 은행 업무를 확장했으며, 고객들이 유가증권에 문의해 오길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러 다니기까지 했다.

물론 당시 은행들은 법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었으나 그는 유가증권을 다루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법적 제약을 벗어나갔다. 그러나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대공황이 발생하자 이러한 무분별한 은행의 활동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다.

급기야 미 의회는 1933년 소위 '글래스-스티걸(Glass-Steagal)법'이라 칭하는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Banking Act of 1933)'을 제정해 금융권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 각자 고유 업종에만 종사하도록 칸막이 규제를 신설하게 된다. 한 금융업종에서 혼란이 발생해도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법의 적용으로 상업은행이었던 JP모건에서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떨어져 나오게 된다.

이후 이 법은 미국 금융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계속 그 지위를 존속해 나갔지만,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유럽의 은행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역으로 은행 및 증권업 등을 겸하는 '유니버설 은행(Universal Bank)'으로 덩치를 키워 나갔다. 오늘날 독일 및 스위스의 은행들이 모두 이러한 유니버설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식 칸막이 제도를 답습하고 있던 영국도 1986년 금융산업의 '빅뱅'을 시행함으로써, 칸막이를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각종 규제도 원천적으로 없애는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그러자 금융규제 완화에서 뒤처졌던 미국도 1999년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취임한 이후 66년간 존속되어 온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하는, 소위 '그램-리치-브라일리(Gramm-Leach-Bliley)' 법안을 통과시켜 칸막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재발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다시 금융규제로 방향을 틀어, 대공황 이후 가장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으로 알려진 도드-프랭크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주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 감독기구 재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히 '볼커 룰(Volcker Rule)'로 알려진, 은행들의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금융규제가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형 은행들은 더욱 거대해지는 한편, 지역 금융기관은 하루에 한 개꼴로 사라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다른 법안으로 대체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시계추처럼 규제와 규제 완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미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어떠한 결과를 내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의 인물 11월 25일 카네기

부의 사회환원에 솔선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1835.11.25~1919.8.11)는 존 D. 록펠러와 함께 19세기 '도금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부호다.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이 카네기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도 없다. 축재 과정에서는 독점과 의원 매수, 노동운동 탄압 등 온갖 악행으로 악덕 자본가라는 욕을 먹었으나 말년에는 재산을 교육과 문화사업 등에 기부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선례가 된 자선활동가로 명성을 남겼다.

어린 시절부터 부에 대한 감각이 남달라 여러 일화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토끼한테 친구 이름을 붙여, 친구들이 자기 대신 열심히 토끼를 키우도록 했다는 얘기는 "나보다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았다"고 강조한 카네기의 경영철학과도 맥을 같이한다.

철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장거리 노선에 침대차를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남북전쟁 종결 후 철강사업에 뛰어들어 제국을 구축했다. 카네기의 철강회사는 한때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했을 정도다. 카네기는 1901년 66세에 이르러서 자신의 회사를 당시 미국 2위 철강업체를 보유했던 은행가 J.P.모건에게 넘겼다. 이것이 바로 현재 US스틸의 전신이다.

이후 카네기는 미국 전역에 3000개의 무료 도서관을 세우고 카네기멜론대학과 카네기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자선사업을 펼쳤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사회 환원에 적극적이었던 카네기는 사망하기 전에 약 3억5000만 달러(약 3995억 원)를 기부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769억 달러에 이른다. 남은 재산 3000만 달러도 각종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저서로 '승리의 민주주의' 등이 있다.

배준호 국제부 차장 baejh94@

온라인 와글와글

연말 불우이웃돕기 찬바람 "또 최순실이 문제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연탄 기부 등 온정의 손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국에서 연탄 기부는 10월부터 두 달간 96만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만 장)보다 36% 감소했다. 전국 연탄은행 31곳이 확보한 물량도 지난해보다 37.5%나 줄었다. 연탄은행은 후원량이 줄자 저소득층 가구당 월 연탄 지원량을 150장에서 120장으로 축소했다. 빈곤층에 지원하는 연탄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공공단체, 개인 후원금을 통해 주로 장만했지만, 전체 후원금의 70%를 차지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후원이 크게 줄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과 최순실 게이트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티즌은 "최순실이 이 나라에서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킨 듯", "정부 예산은 이런 데 안 쓰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 "올겨울은 너도 나도 싸늘한 나날이 되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카드로 보는 세상



"박근혜 퇴진!" "대통령은 물러나라!"….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죠.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임하겠다'는 약속까지 뒤집은 채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CNN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를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권력 후계자의 부재, 사퇴 압박이 크지 않은 여당과 힘이 약한 야당, 쉽게 포기하지 않을 '내력' 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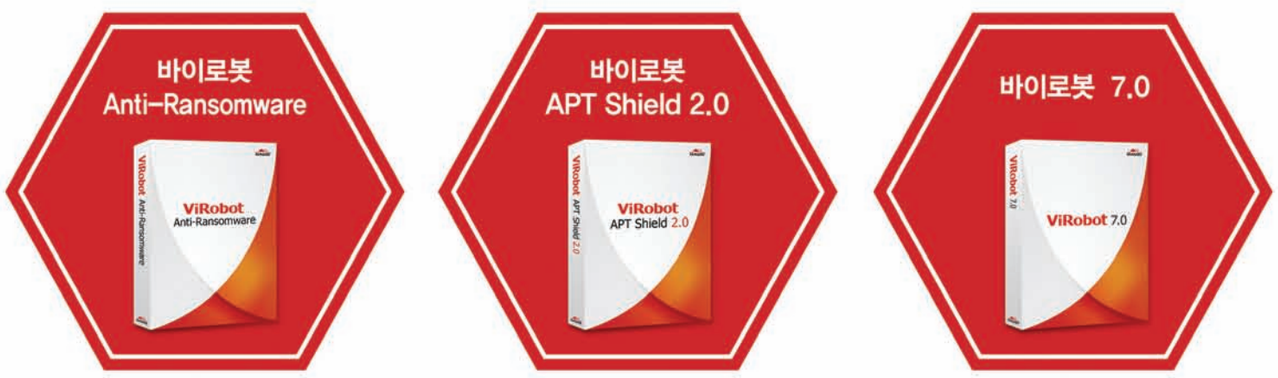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KccZ3W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HAURI

이슈&인물

정치인들 돌려보내는 게 촛불문화의 완성

혼돈의 한국…원로 시국제언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청소년이 촛불 들고 구호
우리 어른 모두의 잘못
지식인 집단의 자만·불통이
지금의 분노 유발한 것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국민의 의사를 위임받아
의사당에서 토론하는 것
돌아가서 당신 역할 다하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 경기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수출은 줄고, 내수마저 둔화되는 시기에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에 촛불의 함성이 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가 혼돈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만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정진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개탄해 마지않는 심정을 드러냈다.

"내일의 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연단에 서서 구호를 외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어른 모두의 잘못입니다. 소통을 외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 혼자만 잘났다고 여기는 불통이 현재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봅니다."

지난 21일 이투데이가 만난 정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임에도, 현재 혼란한 정국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식인 집단의 '자만'을 지적했다. 그는 "이젠 지식인이 민중을 이끌어야 한다는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식인의 의무'라는 개념 자체에 회의감을 내비치며 말문을 열었다.

"소위 지식인으로 자처하면서 자만으로 가득 차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 허상의 '인텔리 문화'가 정치는 물론 법조계·교육계에 가득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누구든지 지식인이 되는 세상인데, 이제는 '잘났다'는 오만에서 벗어나 '각자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소위 '인텔리'라고 부르는 학자답지 않게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자신의 분야 외에는 잘 모른다며 본인을 '부족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감히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고 미래를 맡기자고 말하는 사람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우리나이로 올해 여든을 맞는 이 노(老)학자에게서 그대로 드러났다.

현 시국에서 드러난 사회적 부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 시점에서의 지식인이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 명예교수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지식 공유 시대…지식인이라는 허상

△최근 100만이라는 인파가 모인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사태에서 보이는 민중의 성숙한 정치 의견 표출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곳에 정치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지금 여야가 전부 국회의사당을 비우고 길거리에 나와 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뭔가. 우리의 의사를 국회의원들이 위임받아 의사당에서 표현하는 제도다. 우리를 대신해 의회에서 토론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길거리에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자꾸 집회에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우리 '촛불문화'가 굉장히 성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마지막으로 완성되기 위해선 정치인이 집회에 왔을 때 '우리와 함께 있지 말고, 돌아가서 당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우선 나는 지성인·엘리트 등과 대중·민중을 나누어 세상을 설명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거의 이론이다. 선민의식에서 비롯한 엘리트의식, 곧 엘리트가 대중을 끌고 나가야 한다는 이론은 계급 갈등이 심하던 전근대와 근대의 과도기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진 문제의 인식이고, 해답을 위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다. 폭주하는 지식, 그 지식의 보편적인 확산 등으로 모두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 지금의 지식은 절대로 특정 계급만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는 각자의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 모두가 지식인인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대에는 '지식인인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와 내가 모자라는 것을 서로 채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잘난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다. 내가 지식인이라고 해서 대중을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표현만 다를 뿐 '개, 돼지'를 운운하던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결론을 내자면 대중이라는 개념을 지성인을 뺀 나머지 '비지성적인 집단'으로 볼 게 아니라, '무수한 지성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이라고 봐야 옳다고 생각한다."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 시국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식인들의 자만과 오만을 꼽으며 "과거에서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에서 지금을 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학자 정치참여…성찰능력 사라져

△학계라는 공간에는 우리가 소위 '지식인'이라고 일컫는 학자들이 있다. 역할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들이 이번 시국에서 정치현실에 가져야 할 태도 같은 것은 없겠는가.

"우리 사회에 흔히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있다. 감동적인 슬로건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성이 그다지 없다. '이끄는 엘리트'라는 고전적인 개념에서 나왔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지식인이 연구해야 할 객체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말이라는 점이다. 학문은 언제나 연구 대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학자가 정치현실에 뛰어들어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우리네 정치현실은 이런 모습이더라'라고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학자들이 정치현실에 자꾸 참여할수록 사회의 자기성찰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다.

맹자의 사례를 들어보자. 맹자는 정치현실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정치현실이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학자 입장에 머물러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때 정치현실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맹자가 위정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시대정신에 대해 내린 진단은 당대에도, 그리고 후세까지도 널리 퍼져 정치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맹자의 모습이 학자들에게 귀감이 돼야 한다. 현학적인 체도 하지 않았고, 세력을 만들어 힘을 쌓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폭넓고 깊은 앎에서 우러나는 판단을 담담히 발언하니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다. 이렇듯 학자,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야만 양심인 것이 아니다. 학자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어떤 형태로든 드러낼 자유는 있지만…."

克己復禮·破邪顯正의 지혜 필요

△현 시국을 풀어가는 해답으로 제시할 만한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

"유교의 가르침에는 '극기복례(克己復禮)'라는 말이 있고, 불교에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국민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실패한 데 문제가 있었다. 유교식으로 말하면 '나를 넘어서서 예(禮)로, 곧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극기복례에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나'라는 개인을 넘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 자리의 '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나'를 넘지 못하고, '나'에게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파사현정은 '잘못된 것을 혁파하고 바른 것을 드러내라'는 뜻이다. 혼란이 지속될까 걱정돼서, 못 물러나겠다는 말은 교활한 이야기다. 이를 혁파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사'와 '현정'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삿된 것을 혁파'하는 데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바른 것을 드러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용기 있게 지금의 비정상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새로이 정상적인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용기보다 지혜가 나서야 한다. 과거에서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에서 지금을 보는 혜안이 필요한 때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한 부분으로 이화여대의 비리가 드러나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대에도 몸담은 적이 있었던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부패 사건이 벌어지면 어쩌다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구조, 또는 무감각해진 관행, 아니면 풍토의 문제라고 본다. 비단 정유라 씨 입학에만 그런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청문회를 생각해 보라. 인사청문회 때마다 매번 논문 표절 시비가 문제되고 있지 않나. 물론 표절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논문을 통과시킨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논문 표절이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된다는 건 발표된 논문, 발급된 학위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란 뜻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이대 특례입학 비리문제는 학계라는 구조 전체가 비정상적임을 말해주는 하나의 징후이다. 차제에 학교의 미래상을 조망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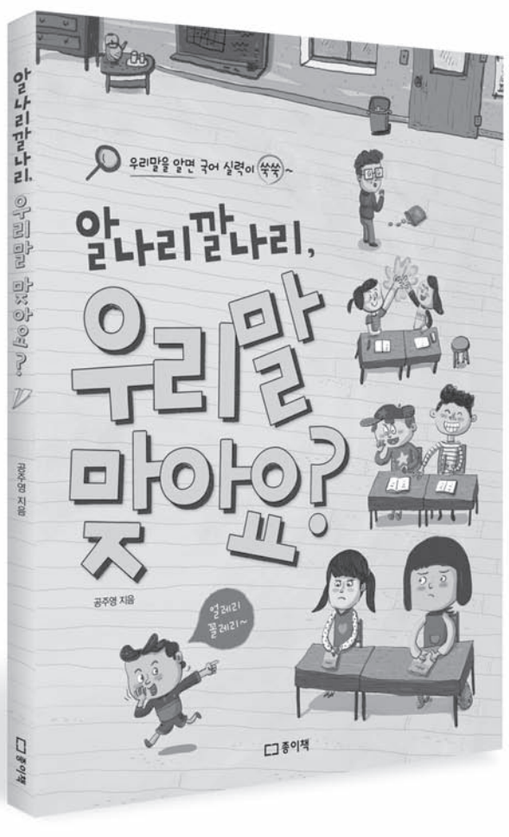
인터뷰/선년규 정책사회부장
정리/김정웅 기자 cogito@

종교학계 거두…학술원 회원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는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 인문대학 종교학과 교수를 지낸 한국 종교학계의 거두다. 은퇴 후 한림대 특임교수, 이화여대·울산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한국종교학회 회장,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있으면서 오로지 종교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공주영 지음 | 178×240mm | 11,200원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초등학생 국어 실력 평생 간다!
이번 여름방학, 포켓몬 잡으러 go? 내 아이 어휘력 잡으러 go, go!

1~4학년 교과서 수록 단어 포함!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우리말!

- 교과서 수록 단어를 포함한 우리말 160여 개 풀이
- 반복 학습을 돕는 <은솔이가 내는 쏙쏙 우리말 퀴즈>
- 자주 써서 오래 기억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말을 써 봐요>



온 · 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 중!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2, 4층 | Tel. 02-540-5192 | Fax. 02-540-5194 리스컴

연기하며 소리 지르고 울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 놀라

인터뷰 영화 '형' 도경수

더 이상 아이돌 출신 배우는 인기를 등에 업고 무임승차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인식을 만든 데는 '연기돌' 도경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를 통해 '될 성 부른 떡잎'임을 증명했던 도경수는 영화 '카트'로 스크린에 승선하자마자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가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인 줄 모르는 관객들로부터 "어디서 나온 신인 배우야?"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으니, 그에게 연기 논란 따위는 없었다. 이제 배우라는 수식어가 낯설지 않은, 도경수. 영화 '형'은 그가 '순정'에 이어 두 번째로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형'에서 도경수는 전도 유망한 유도선수였다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두영을 연기했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연기돌 눈도장
'카트'로 스크린 입문… '순정' 이어 두번째 주연
시각장애인 역할 위해 100분간 '어둠 속 체험'
평소 차분한 성격… 배우로 얻는 간접경험 행복

△'형'의 어떤 면에 끌렸나요?

"'형'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시나리오였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었어요. 흥분됐죠. 두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은 욕심도 컸어요. 두영은 극이 진행될수록 밝아지는 캐릭터예요. 그동안 제가 어두운 면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두영을 통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 두영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인물이에요.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제가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방법을 찾아보니 시각장애 체험관 '어둠 속의 대화'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100분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일상을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열어두는 경험을 했죠. 그 경험이 연기에 도움이 됐어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를 통해 만난 조인성, 이광수 등의 형들과 친분을 이어가고 있죠? 형들과의 관계가 이번 연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아요. 조인성 선배는 저에겐 진짜 친형 같은 존재예요. 광수 형도 저를 잘 챙겨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형이죠. 지금 함께 촬영 중인 '신과 함께'의 하정우 선배에게도 배울 게 참 많아요. 진짜 대선배이신데 한 대사를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많죠.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형들을 많이 따르나 봐요

"저보다 어른이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동생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믿고요. 마음이 잘 통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편이에요."

△엑소 디오와 연기자 도경수는 다른가요?

"마음가짐은 같은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죠. 느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연기할 때는 제가 가지고는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나와요. 저는 평소, 소리 지르거나 윽박지르거나 슬프게 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기라는 간접경험을 통해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 행복해요. 무대에서 춤출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죠."

△뭐랄까.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진심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진심입니다! 거짓이라면 저는 티가 날 거예요.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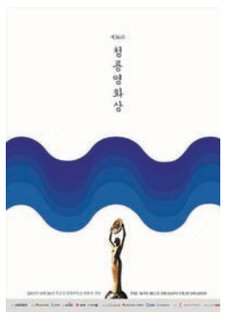
△행복의 근원은 뭔가요?

"요즘,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 다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제공 CJ엔터테인먼트



대리… 뒷돈 구겨진 대종
VS
변화… 파격 비상한 청룡



'순실의 시대'에 바라본 영화賞의 가치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가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그럴 필요도 없을 때가 있다. 경쟁자가 알아서 자폭해 줄 때, 뜻하지 않게 주목을 받게 되는데 지금 '청룡영화상'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다. '대충상'으로 거듭난 '대종상'의 붕괴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해 '대종상'은 대리수상을 막으려다 역대 최다 대리수상이란 역풍을 맞는 한 편의 코미디였다. 남녀주연상 후보들 전원이 시상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시상식 내내 "대리~ 대리~ 대리"라는 단어가 넘쳐났다.

'대종상'은 하루아침에 몰락한 건 아니다. 그것은 '대종상'의 흑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1996년 대종상은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 '애니깽'에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몰아주며 추문의 대상이 됐다. 2000년에는 한 신인 배우가 뒷돈을 대고 대종상 신인상을 챙겼다. 장나라가 미개봉작 '하늘과 바다'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등극했던 지난 2009년의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타락한 권위와 길 잃은 공정성. 출석상 논란에서 시작된 '대종상'의 파행은, 긴 시간 쌓여왔던 썩은 부분이 곪아 터진 결과물인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종상'에 대한 실망이 커질수록 '청룡영화상'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청룡영화상'의 노력도 한몫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청룡영화상'은 조선일보사가 후원하는 행사다. 주관사의 정치적 색깔로 인해 적지 않은 잡음에 시달려 온 게 바로 '청룡영화상'이다.

정치적 한계를 여러 차례 드러낸 '청룡영화상'은 그러나 최근 여러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014년 송강호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연기한 '변호인'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예상 밖 결정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화룡점정은 여우주연상이었다. 2014년엔 독립영화 '한공주'의 천우희가, 지난해에는 역시 독립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정현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기면서 객관성 면에서 '대종상'보다는 나은 결정을 한다는 인식은 심었다. 단순 인기에 편승한 결과가 아닌, 진짜 작품을 찾으려는 노력. 그것이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의 오늘을 갈라놓은 게 아닐까.

정시우 기자 siwoorain@



'안투라지' 너마저… 사전제작의 저주

'태후' 이후 도전 이어졌지만 줄줄이 시청률 참패

올해는 사전제작 드라마의 한 해였다. 큰 성공을 거둔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전제작 드라마들이 범람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대중의 뇌리에 남은 작품은 몇 안 되는 듯하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KBS2 '태양의 후예'는 40%대에 육박하는 기록을 남게 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마지막 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38.8%(이하 동일 기준)를 기록했고, 연초에 방영됐음에도 현재까지 화제성이 이어지고 있다.

'로드넘버원', '비천무', '탐나는 도다', '파라다이스 목장'과 같이 100% 사전제작을 표방했던 작품들이 좋지 않은 성적을 냈던 것과 달리 '태양의 후예'가 큰 성공을 거두며 사전제작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이에 더해 중국 동시방영을 위한 심의를 위해 사전제작은 필수가 됐고, 수많은 작품들이 사전제작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 다수의 작품들은 흥행에 실패했다. '태양의 후예' 이후 방영된 100% 사전제작 작품들은 시청률 면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우빈·수지가 호흡을 맞추며 기대작으로 떠올랐던 KBS2 '함부로 애틋하게'는 시청률 경쟁에서 밀렸고, 정일우·안재현 등 꽃미남 스타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tvN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도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진 못했다.

SBS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도 아쉬운 성적을 내긴 마찬가지다. 150억 원을 투자한 대작이거니와, 이준기·강하늘·홍종현·남주혁·백현(엑소)·지수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대거 참여해 '푸른 바다의 전설'과 더불어 하반기 SBS의 최고 기대작으로 꼽혔다. 하지만 방송 내내 시청률 꼴찌를 면치 못했고, 마지막 회에 이르러서야 자체 최고 시청률 11.3%를 기록하며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tvN '안투라지'는 혹평을 받으며 시청률 추락 중이다. 조진웅·서강준 등 대세 배우들이 만났지만 과한 수위의 대사와 일부 출연진의 부족한 연기력 등이 도마에 오르며 시청률이 0.6%까지 하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사전제작에 대해서는 현재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한 방송 관계자는 사전제작의 장점에 대해 "쪽대본이 아니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작품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라고 평했다.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사전제작은 양날의 검이다. 극의 중심을 잡아나갈 수 있는 반면 시청자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능하지 않나. 전개를 불편해 해도 이미 모든 촬영을 마쳐놨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힘들다"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yeye@



"방송사는 우리가 결정해"… 甲 없이 카메라 든 '겁 없는 乙들'

방송사 없어도 '고(Go)'다.

윤아와 임시완의 특급 만남으로 관심을 모은 '왕은 사랑한다'는 12월부터 촬영에 돌입한다. 방송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승연, 씨엔블루 이종현, FT아일랜드 이재진 등 청춘스타들이 등장하는 '마이 온리 러브송' 역시 방송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막바지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사 편성이 확정된 후 캐스팅 등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0년 '파라다이스 목장'이 드라마가 먼저 완성된 후 SBS에 편성돼 화제가 됐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다.

웹드라마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 선공개 후 TV로 방영하는 경우도 있다. 첫 공개 당일 100만 뷰를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KBS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사진〉가 대표적인 예다. '마음의 소리'는 "KBS에서 12월에 방영한다"라는 정도만 결정된 상태에서 온라인에서 첫 선을 보였고, 이후 12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영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프로그램 중에서도 방송사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방송사 결정전 촬영 돌입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 선공개 후 KBS 방영 결정
SM, 온라인서 '마이 SM 텔레비전'으로 소통 예능
제작비 늘어나는데 쥐꼬리 지원… 脫방송사 러시

김병만은 네이버 V앱 채널을 통해 '병만TV'를 선보였다. 아이돌의 경우 더 활발하다. 과거 음악전문채널을 통해 선보였던 일상 리얼리티 프로그램, 토크쇼 등을 자신만의 온라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선보이고 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아예 '마이 에스엠 텔레비전(my SM Television)'을 지난 9월 론칭하고 팬들과 쌍방향 소통 예능을 목표로 SM 소속 아이돌들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이런 흐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TV프로그램도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친숙함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 나영석 PD가 tvNGO라는 온라인 전문 플랫폼에서 '신서유기'라는 예능을 선보인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점점 제작비는 늘어나지만, 방송사의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아예 방송사 없이 하겠다"는 제작사도 늘어나고 있다. 직접 PPL, 협찬 등을 통해 제작비를 조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 그동안 방송사에 당연하게 넘겼던 권리를 갖고 있겠다는 것. 한류를 통한 판권 판매 등이 빼놓을 수 없는 수익 영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여전히 방송사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안 되서 온라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틀어도 된다'는 인식이 이제는 자리 잡은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예전엔 편성이 안 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건 상상도 못했다"며 "하지만 요즘은 제작진 등을 보고 먼저 출연 의사를 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인 터 뷰 드라마 '쇼핑왕 루이' 끝낸 남지현

"13년차 내공? 아역 꼬리표 뗀 꼬꼬마"

배우 남지현이 MBC 수목드라마 '쇼핑왕 루이'에서 보여준 것은 서인국과의 로맨스에만 그치지 않는다. 안정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 유쾌하고 달달한 극의 분위기를 주도한 에너지까지 데뷔 13년차 내공이 발휘됐다. 아역과 성인 연기자의 과도기에 있던 자신의 성장을 확인시켰고, 초반 부족했던 대중의 관심을 차기작이 기다려지는 배우로 바꿔놓았다.

"첫 방송 시청률이 저조했을 때나 상승세를 타다 1위를 찍었을 때나 현장 분위기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늘 농담을 하면서 웃고 즐겁게 촬영했어요. 사실 드라마가 밝고 재밌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초반부터 상승세를 탈 줄은 몰랐어요."

공효진, 조정석의 SBS '질투의 화신'과 김하늘, 이상윤이 출연한 KBS2 '공항가는 길'의 대항마가 된 이 드라마를 두고 흥행을 장담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쇼핑왕 루이'는 무서운 기세로 인기몰이를 하더니 동시간대 1위도 여러 번 차지하며 종영했다. 높든 낮든, 대중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 자신의 이름으로 첫 미니시리즈 주연을 단작품을 성공적으로 끝맺은 남지현의 감회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기대작이 아니고, 저조한 시청률로 시작하니까 처음엔 걱정했어요. 2회부터 꾸준히 시청률이 오르더라고요. 이미 SBS '질투의 화신'이 먼저 방송돼 자리를 잡고 있던 만큼, 1위를 하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쭉쭉 올라가서 1위를 하니 되게 얼떨떨하더라고요. 곱씹을수록 참 기특한 일 같아요.(웃음)"

경쟁작 많아 첫 방송 시청률 저조
회 거듭하며 상승 1위 한 건 기적
다들 '구멍' 있는 캐릭터라 귀여워
"덕분에 웃었다" 댓글 가장 좋아

드라마를 흥행으로 이끈 주역 남지현이 생각하는 '쇼핑왕 루이'의 인기 원동력은 무엇일까.

"완벽한 캐릭터가 없었어요. 다들 큰 구멍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 점이 캐릭터를 사랑스럽고 귀엽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선구(김규철 분)나 구실장(김민혁 분) 같은 악인도 실수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또 서인국 오빠는 워낙 센스가 있어서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커플이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남지현은 연애 경험이 부족하다고 털어놓으며 작품을 통해 연애 감정을 배웠다. 그의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진 장면들 덕분에 서인국과의 로맨스 기운은 폭발됐다.

"아역 때도 키스신은 있었는데, 본격적인 러브스토리를 그린 건 이 드라마가 처음이에요. 루이와 복실의 모습이 사랑스러우니까 연기하는 순간도 기분 좋았어요. 현실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사랑을 드라마를 통해 경험했고요. 저희 가족들은 원체 반응이 없고 덤덤한 편인데, 엄마가 '너희 너무 귀여운 거 아니니?'라고 하기도 했어요(웃음). 댓글들을 봤는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오늘도 보고 웃었다'는 말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피곤이 풀리고, 에너지를 얻었다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데뷔 13년차 남지현은 '쇼핑왕 루이'를 통해 청춘 로맨스의 여주인공으로 당당히 합격점을 받으며 아역배우의 꼬리표를 뗐다.

"연차가 오래됐지만 부담되거나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물론 저를 성장시킨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성인 연기를 한 건 불과 2~3년밖에 안 된 꼬꼬마이거든요. 새로 습관을 들여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와 드라마 모두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글/서현진·사진/윤혜진 기자 sssw@

"블랙리스트? 할 말은 해야죠"

스타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신 발언 잇따라


윤종신


정우성


이승환

이승환 "하야하라" 현수막
정우성, 아수라 대관 상영회서
"박근혜 앞으로 나와" 외쳐
산이, 정부 풍자 '나쁜 X' 발표
윤종신도 "빤한 영화" 비판

풍자, 풍자, 또 풍자다. TV를 켜면 하얀 블라우스에 머리 위에 선글라스를 올린 개그맨들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음악을 틀면 "하야.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산이 '나쁜 X')라는 가사가 들린다.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 2016년 11월, 조용하던 연예계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가수 이승환과 "모든 권력이 최순실 일가에서 나왔다면 헌법 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외친 방송인 김제동의 행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사업, 용산 참사 등 나라가 시끄러울 때마다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아닌가. 가수 윤도현, 방송인 김미화 등 일부 우익 단체들에 의해 '좌파'로 분리된 연예인들 역시 집회에 참석하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배우 정우성의 발언은 예상밖의 것이었다. 영화 '아수라' 대관 상영회 현장에서 "박근혜 앞으로 나와!"를 외친 정우성의 과감함에 사람들은 놀랐고 감탄했고 열광했다. 지난 3일 열린 런던 한국영화제 기자회견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첨예한 정치적 이슈에 성향을 드러내지 말자. 조용히 돕고 지원하고 힘을 실어 주자'가 내 모토"라고 말했던 가수 윤종신도 이번만큼은 달랐다. 현 시국을 가리켜 "선악 구분 뚜렷한, 구성이 더럽게 조악한 빤한 영화"라고 비판했고, "(영화를) 두 편 연속 망쳤으니, 이제 잘 만들 차례"라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래퍼 산이는 23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은유와 풍자로 가득한 신곡 '나쁜 X'을 발표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소속사 측은 "평소 산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감 없이 담았다. 노래에 대한 해석은 팬들에게 맡길 것"이라며 열린 해석을 당부했지만,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라는 패러디부터 "내려올래" "얼마 안 남았어"라는 노골적인 메시지까지, '나쁜 X'는 쉴 새 없이 현 정권을 저격한다.

배우 전혜빈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나라가 '어순실'해서"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후 "이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습했다. 그것은 '소신 발언'이 '외압 의혹'으로 이어지던 대한민국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테다. 하지만 이제 연예계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 할 말은 하고 살자.

이은호 기자 wild37@



푸른 바다의 전설

월화 '낭만닥터 김사부' 20% 돌파 눈앞
수목 '푸른 바다의 전설' 동시간대 1위
주말 '우리 갑순이' 연속 편성 후 선두로

SBS가 침체기를 극복하고 드라마 왕국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월화·수목극의 쌍끌이 흥행은 물론, 주말극의 과감한 편성 변화로 시청률 우위를 확실히 점했다.

흥행의 시발점은 월화드라마였다. 한석규 유연석 서현진 주연의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극본 강은경, 연출 유인식)는 지난 7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리며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6회까지 방송됐으며 시청률 20%대 돌파를 목전에 뒀다. 강은경 작가의 흡입력 있는 필력과 유인식 감독의 감각적 연출의 시너지는 물론, 배우들의 연기 합도 맞아떨어지며 시청자 유입을 이끌었다.

여기에 SBS 최고 기대작 '푸른 바다의 전설'(극본 박지은, 연출 진혁)은 수목드라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별에서 온 그대'의 히트 조합인 박지은 작가와 전지현의 재회로 방영 전부터 큰 화제가 된 '푸른 바다의 전설'은 진혁 감독과 이민호까지 더해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지현의 수중 연기와 특유의 능청스러운 코믹연기, 인어가 사는 물속을 그대로 재현한 아름다운 영상미가 돋보인다.

두 드라마가 각자의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면, SBS 주말드라마 '우리 갑순이'(극본 문영남, 연출 부성철)는 실험적인 편성이 제대로 효과를 낸 사례다. 앞서 SBS는 주말 시청자 선택권 강화를 목표로 토요일 저녁 드라마 2회 연속 편성이라는 파격적인 시도에 나섰다. 이에 '우리 갑순이'는 지난 5월부터 2회씩 연속 편성됐고, 이는 19일 방영된 24, 25회에서 제대로 빛을 발했다.


낭만닥터 김사부


우리 갑순이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우리 갑순이' 24회는 9.4%(이하 동일기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 드라마 MBC '불어라 미풍아'를 0.2%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SBS는 최근 드라마 흥행 면에서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닥터스'에서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로 넘어가며 시청률 1위에서 3위로 주저앉은 SBS 월화극은 '낭만닥터 김사부'로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수목극의 경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방송됐던 '원티드'가 최하위권을 맴돌다 '질투의 화신'을 기점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푸른 바다의 전설'로 1위 자리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우리 갑순이' 또한 김수현 작가의 '그래, 그런거야'의 부진으로 불안한 첫걸음을 뗐지만, 연속 편성이 신의 한 수로 작용하게 됐다.

김예슬 기자 yeye@

젝키부터 세븐틴까지… 선후배 안가리는 연말 컴백 러시

S.E.S. 28일 싱글 공개 후 단독 콘서트
29일 신화…젝키는 내달 1일 앨범 발표
B1A4 정규 3집·세븐틴 미니음반 준비

데뷔 20년차 1세대 아이돌부터 이제 막 만 1년을 넘긴 신예들까지, 가수들의 컴백 러시로 가요계는 연말까지 뜨거울 전망이다.

스타트는 원조 요정 S.E.S.가 끊는다. 데뷔 20주년 기념일인 28일 SM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싱글 공개 채널 스테이션(STATION)을 통해 '러브[스토리](Love[story])'를 발표한다. 지난 1999년 발표한 '러브'에 또 다른 히트곡 '아임 유어 걸(I'm your girl)'과 새로운 랩을 매시업했다. 이어 12월 30~31일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2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1월 2일 스페셜 음반을 내놓는다.

바통은 신화가 이어받는다. 신화는 오는 29일 정규 13집 '언체인징(UNCHANGING)'을 발표한다. 지난


신화

달 선공개곡 '아는 사이'를 발표, 국내 주요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훌륭하게 전초전을 치러냈다. 12월 17~18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앞서 멤버별 개인 포스터를 통해 '스탠딩(Standing)', '윈터(Winter)', '댄스(Dance)' 등의 키워드를 공개, 공연 내용에 대한 힌트를 전했다.

젝스키스는 12월 1일 '리 앨범(Re-Album)'을 발표한다. 기존 히트곡 10곡을 트렌드에 맞게 편곡해 녹음, 믹싱, 마스터링까지 새로 진행했다. 기존에 준비 중이던 신곡 발표는 잠정적으로 연기된다. YG엔터테인먼트는 "신곡은 2017년 4월 개최 예정인 20주년 콘서트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배 그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올해 개별 활동으로 위상을 높인 B1A4는 28일 정규 3집 '굿 타이밍(Good Timing)'을 발매한다. 팀 음반은 물론 Mnet '프로듀스101', '음악의 신2'를 통해 작곡 실력을 인정받은 진영이 새 음반에서도 프로듀서로 적극 활약했다.

세븐틴은 12월 9일 세 번째 미니음반 '고잉 세븐틴(Going Seventeen)'을 발표한다. 앞서 공개된 유닛별 티저 이미지에는 '소원을 빌어봐', '현실로 만들어봐', '세븐틴을 만들어봐'와 같은 문구가 등장해 궁금증을 낳는다. 소속사 측은 "멤버들이 소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열정의 결과물을 '세븐틴'이라는 매개체로서 완성한다는 의미"라고 귀띔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우리는 노마드 골퍼”…상금 좇아 세계를 누빈다

국가대표 출신 김경태, 상금 많은 일본행…올시즌 3승
‘떠돌이 이방인’ 안병훈, 유럽투어 신인상 후 PGA로
왕정훈도 필리핀·중국 오가다 유럽투어 합류 맹활약
국내 남자 프로대회 활성화 안돼 해외진출 줄 이을 듯

“이제 21세기형 ‘노마드’라 불러다오.”

진짜 유목인(遊牧民)이 아니다. 남자 프로골퍼 얘기다. 노마드는 유목민의 라틴어. 이전의 유목민은 중앙아시아, 몽골, 사하라 등 건조, 사막 지대에서 목축을 생업으로 삼아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을 가리켰다. 그러나 현대판은 다르다. 신세대 노마드는 휴대전화, 노트북, 드론 등과 같은 첨단 디지털 장비를 갖고 자유롭게 유랑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 프로골퍼들은 첨단기기와 함께 골프백을 짊어지고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 왜, 유랑생활에 뛰어드는 걸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국내골프는 조금 기형적이다. 여자대회는 33개 215억원. 그러나 남자는 겨우 12개, 8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소속 프로는 6000명이 넘는다. 여자는 2000여 명. 정규 투어에 출전해 상금을 타는 선수는 많아야 200여 명 안쪽이다. 매주 대회가 열리는 여자들도 출전 제한으로 120~140명 정도. 그것도 컷오프를 통과해야 상금을 받는다. 절반은 늘 컷오프를 당한다.

떠나는 선수는 2가지 유형이다. 기량이 탁월해 국내를 평정하고 미국이나 일본무대로 옮겨가는 경우다. 대표적인 선수가 최경주(46·SK텔레콤)와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다. 최경주는 국내에서 굵직한 대회에서 승수를 올리더니 눈을 미국으로 돌려 성공한 케이스다.

국가대표 출신의 김경태도 마찬가지. 국내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일본행을 택했다.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5승을 챙기며 상금왕에 오른 김경태는 올 시즌에 벌써 3승을 거뒀다. 송영한(25·신한금융그룹)과 조병민(27·선우팜)도 각각 1승씩을 따내며 든든히 뒤를 받쳤다. 매주 경기가 열리는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황금알을 낳은 거위’였기 때문이다.

한국선수들은 일본처럼 좋은 무대가 없다. 한국선수들이 해마다 퀄리파잉(Q)스쿨에 200여 명씩 도전한다. 일단 Q스쿨만 통과하면 일본무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절대로 일본선수들에게 밀리지 않는 기량을 지니고 있는데다 정신력도 강해 언제든지 우승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일본 나고야 미에현의 코코파리조트 골프코스에서 열린 Q스쿨에서 지난 3년간 한국선수와 재미교포가 수석을 차지한 것만 봐도 한국선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상희(24)도 수석 합격자다. 김형성(36·현대자동차), 이경훈(25·CJ대한통운) 등 수십 명의 프로들이 매주 일본선수들과 샷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을 택한 선수는 그나만 형편이 나은 선수들이다. 유목민 이상으로 ‘유랑’ 생활을 마다않는 선수가 있다. 안병훈(25·CJ오쇼핑)과 왕정훈(21·캘러웨이)이다. 여기에 이수민(23·CJ오쇼핑)이 가세했다. 유럽투어로 가기 위해 안병훈과 왕정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길을 걸었다. 뼈를 깎는 고된 생활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마치 고행에 나선 ‘수도승’ 같은 선수들이다. 이들은 ‘눈물 젖은 빵’을 제대로 먹은 신세대 프로골퍼로 보면 된다.

이 때문에 둘은 골프 궤적이 비슷하다. 주니어 시절에는 특별한 재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프로 데뷔 후 가시밭길이었다. 그리고 둘 다 지기 싫어하는 근성을 갖고 있다. 둘 다 국내서 상비군이나 대표를 지내지 못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 강점은 둘 다 키가 183cm가 넘고, 320야드 이상 시원하게 장타를 날린다는 점이다. 그리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둘다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다.

안병훈은 탁구스타 국제커플인 안재형과 자오즈민의 아들이다. 그는 세종초교 때 방과 후 스포츠 활동으로 골프에 입문했다. 중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는 17세 때인 2009년, 최연소로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1년 프로에 진출했으나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Q스쿨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차선책을 택한 것이 유럽이었다. 유럽 투어도 장벽이 높다.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2부 챌린지 투어를 뛰었다. 3년 동안 챌린지 투어에서 기량을 차근차근 다져나갔다.

그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오만, 케냐 등 불모지를 돌아다녔다. 아프리카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공이 될 줄이야. 지난해 유럽투어 정규 투어에 입성해 남아공, 두바이, 카타르, 모로코, 중국, 스페인, 영국 등 7개국을 순회하며 경기를 치렀다. 그러다가 덜컥 우승한 것이 유럽 메이저대회 BMW PGA 챔피언십이다. 이 한 방으로 스타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유럽투어 신인상을 수상한 뒤 PGA투어로 옮겼다.

안병훈이 떠돌이 이방인이었다면 왕정훈은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중국을 오간 뒤 유럽에 합류한 케이스다. 왕정훈은 초등학교 6년 때 필리핀으로 날아갔다가 중학교 3년 때 한국에 돌아왔으나 학제가 맞지 않아 다시 필리핀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아마추어챔피언십에서 우승, 국가대표를 꺾을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다시 쫓겨나야 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 이때 중국에서 3부투어가 생겼다. 나이 제한이 없었다. 그의 나이 만 16세. 2012년 프로로 전향했다. 실력에 걸맞게 상금왕이 됐다.

그러면서 아시안투어로 눈을 돌렸고, 다시 유럽투어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것도 최연소 기록이다. 안병훈에 이어 올해 유럽투어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수민은 국내에서 탄탄하게 기량을 쌓은 뒤 안병훈, 왕정훈과 함께 올 시즌 유럽투어에서 활약하는데 벌써 1승을 챙겼다. 이들은 유럽투어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임을 잘 안다.

국내 남자 프로계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보다 많은 ‘노마드’ 선수들이 등장할 것은 불 보듯 훤하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박인비·전인지·이보미… ‘챔피언볼’ 스릭슨 Z스타

뛰어난 스핀·부드러운 타구감 자랑

던롭스포츠코리아(대표이사 홍순성·www.dunlopkorea.co.kr)가 ‘팀 스릭슨’ 덕에 최고의 주가를 올렸다.

스릭슨 볼을 사용하는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2016 시즌 신인상 및 최저타수상(베어트로피)을 수상했고, 이보미(28·노부타그룹)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2년 연속 상금왕에 올랐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스릭슨 Z-스타 볼을 사용하고 있는 전인지는 지난 9월 LPGA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남녀 메이저 대회 사상 최저타 기록을 수립, 신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1일 막을 내린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최저 타수상인 베어트로피까지 차지하며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래 38년 만에 신인 2관왕에 올랐다.

이보미가 JLPGA투어 다이오제지 에리에르 레이디스 오픈에서 공동 26위로 경기를 마치며 2년 연속 상금왕을 확정했다. 이보미는 2013년부터 스릭슨 Z-스타 볼을 사용한 이래 모두 17승을 기록하며 일본 여자 투어를 평정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영구 시드권까지 획득했다.

스릭슨 Z-스타 시리즈는 뛰어난 스핀 성능과 부드러운 타구감을 자랑하는 스릭슨의 대표적인 볼이다. 2011년부터 Z-스타 볼을 사용하는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지난 8월 리우올림픽 여자 골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세계 최초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데 이어 이번에 전인지, 이보미 또한 대기록을 세우는 등 명실상부한 ‘챔피언의 볼’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왼바지 앞주름 벽 닿는 느낌으로 체중이동·히프턴 동시에



김동하의 사이언스골프레슨

스윙할 때 체중 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 중에 “울”과 “셋”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울”에서 체중 이동은 되고 연결 동작인 히프턴이 안 될 경우, 자신의 오른쪽에 거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거울을 보게 되면 임팩트 시에 오른쪽 다리 대퇴부 측면만 보이게 될 것이다.

제대로 힙턴까지 연결됐다면 응당 양쪽 엉덩이가 거울에 훤히 보여야 한다.

“울”에서 왼발바닥 바깥쪽으로 체중을 넘김과 동시에 히프턴을 행하면 벨트 버클이 타깃 쪽을 향하며 강력한 임팩트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데 비거리에 한 맺힌 골퍼라면 리듬에 몸을 실어 이 두 동작을 연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터득해야 할 것이다.

이 헷갈리는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울”하면 곧바로 자신의 바지의 왼쪽 앞주름이 벽에 맞닿게 하는 느낌으로 동작해주면 체중 이동과 히프턴을 동시에 익히며 최적의 타이밍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두 동작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울”할 때 왼발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어차피 체중이 왼발바닥 바깥쪽으로 몰려야 하니 말이다.

이렇게 “울”과 “셋”이 이뤄질 경우 임팩트 시에 히프턴이 강력히 이뤄져 엉덩이가 훤히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이언스골프아카데미 원장



자신의 바지의 왼쪽 앞주름이 벽에 맞닿게 하는 느낌으로 동작하면 체중이동과 히프턴을 동시에 익히며 최적의 타이밍도 찾을 수 있다.

‘눈물나는’ 겨울라운딩…바람막이 고글·모자는 필수



김부기의 골퍼와 눈건강



입동이 지나고 초겨울이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골프를 인생의 낙으로 여기는 마니아들은 찬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라운딩을 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겨울 라운딩 시, 눈 건강을 해치는 복병이 있다. 맨눈으로 건조하고 강하게 불어오는 겨울바람을 자주 맞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눈물 흘림증이 생길 수 있다. 눈물을 닦으려 눈을 자주 비비게 돼 염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나이 들수록 증상이 심해지며,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 탓에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눈물 흘림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눈물이 정상치를 벗어나 너무 많이 생성돼 넘쳐 흐르는 경우다. 안구건조증, 알레르기, 결막염, 각막염 등 질환이 원인이 되거나 잘못된 렌즈 사용 등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안구건조증이 주된 원인이다. 얇게 코팅한 듯 우리 눈을 보호하고 있는 눈물막이 강한 바람에 파괴되면 눈물막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눈물이 흐른다.

눈물 흘림증 예방을 위해 야외 라운딩 시 얼굴에 최대한 밀착된 고글을 쓰거나 모자, 안경 등으로 바람을 막는 것이 좋다. 미리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도 방법이다. 바람을 많이 맞고 난 뒤에는 눈찜질로 눈물막을 안정시키자. 섭씨 40~45도 정도의 따뜻한 물수건을 눈에 5분 정도 올려둔 뒤 빠져 나온 노폐물을 닦아내면 된다.

눈물 흘림증이 생기는 또 한 가지 원인은 노화나 선천적인 이유로 눈물의 배출로가 얇아지거나 막힌 경우다. 슬픈 감정이 들거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눈물은 겉으로 흘러내린다. 하지만 평소 눈을 깜빡일 때 생기는 눈물은 눈 앞부분의 눈물길을 따라 콧속으로 빠져나간다.

노화로 눈 주위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결막이 이완되면 눈물길이 얇게 늘어나고 좁아진다. 이때 콧속으로 빠져나가야 할 눈물이 막힌 배출로 대신 겉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간단한 수술적 처치로 눈물 흘림증을 치료할 수 있다. 부분마취 후 내시경을 콧속으로 넣어 눈물길을 넓혀주고 실리콘 관을 삽입한다. 6개월 뒤에 실리콘관을 제거하면 수술이 완료된다.

치료가 어렵지 않은 만큼 눈물 흘림증을 앓고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눈물 흘림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면 증세가 악화돼 결막염, 각막염 등으로 번질 수 있다. 눈물을 닦느라 자꾸 눈을 만져 손의 세균이 눈 속으로 들어가 염증이 생기기 쉽다. 눈이 자주 피곤해져 눈곱이 생기고 눈가 피부가 짓무르기도 한다. 눈물을 담아두는 주머니 역시 염증이 생겨 고름이 차오를 수 있다. 또한 눈물이 지속적으로 시야를 가리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

온누리스마일안과 원장

또 한 해가 간다, 내 마음에 위로의 촛불을 켜자

방송인 김제동 자전적 이야기 '그럴 때 있으시죠?'
'광수생각' 만화가 박광수 감성 일러스트 'LOVE'
옛 연인의 회상 그림 에세이로 '파리에 비가 오면'
어수선한 시국 반영…따뜻한 책 한 권으로 힐링

'최순실 게이트'로 올 연말 사회 전반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국민은 "대통령에 속았다"라며 분노하고 있고,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은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출판업계도 어수선한 현 시국을 반영하듯 힐링 도서가 주목받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은 '그럴 때 있으시죠?'라는 책을 통해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눈다. '그럴 때 있으시죠?'는 김제동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그는 책에서 "그럴 때 있으시죠. 뭔가 말하고 쓰고 싶은데 '에이. 됐어. 나만 그렇겠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싶을 때. '너만 그러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무 말 말자' 싶을 때"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못다 한 이야기를 꺼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무언가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있지만 뭐가 불안한지 모를 때, 피곤해 죽을 만큼 일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가족을 사랑하긴 하지만 만나면 도망가고 싶은 하루도 쉬울 날 없는 나날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마치 '나'의 마음속 비밀일기를 들킨 것처럼 공감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감성 깊은 일러스트로 독자들의 마음을 녹여줄 책도 나왔다. '광수생각'의 저자 박광수 작가의 'LOVE'다. 저자는 'LOVE'에 대해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곱씹어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한다.



그럴 때 있으시죠?
김제동/나무의마음/1만5800원

LOVE
박광수/베가북스/1만3000원

파리에 비가 오면
현현/북폴리오/1만4000원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사랑한 일이다." 박광수 작가는 'LOVE'를 통해 지난 100년간 사랑을 노래하던 시인들의 시구와 명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성을 더한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조화시키는 데 힘썼다. 여기에 때론 작가의 경험을 담은 말 몇 마디가 더해져 독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유년시절 풋풋한 소설 '소나기' 소년의 사랑처럼, 때론 연인 간의 뜨거웠던 사랑처럼, 자식을 바라보는 가슴 저린 부모의 사랑처럼, 그리고 이 순간 어디선가 생을 다한 이를 보내며 마음에서 마주하는 사랑처럼 그 사랑들은 저마다 특별함으로 깊은 울림을 전한다. 작가 박광수는 'LOVE'를 통해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 세상에 옳고 그른 사랑은 없다는 것, 사랑은 오직 사랑이고, 그 하나로 꿋꿋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독자들과 공감하려 한다.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이에터들과 팬들의 커뮤니티 '그라폴리오'에서 인기를 얻은 그림에세이 현현의 '파리에 비가 오면'은 연말을 맞아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줄 만한 책이다.

'파리에 비가 오면'은 2014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연재되고 있는 그림에세이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기를 준 옛 연인에 대한 추억과 절절한 그리움을 파리라는 낭만적인 장소 속에 풀어놓고 있으며, 수채화 풍의 채색과 동화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서정적인 그림에 시의 형식으로 글을 덧붙였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써 내려간 글은 독자들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얻었다는 평을 받으며 그림만큼이나 큰 호응을 얻었다.

"겨울비가 슬픈 건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치도록 갈망해도 닿을 수 없는 그대처럼" 현현의 '파리에 비가 오면' 역시 결국 핵심은 사랑이다. 그것도 참 따뜻한 사랑 이야기다. 행복한 그림보다 오히려 혼자 쓸쓸히 선 풍경이나 옛 연인을 회상하는 모습이 많지만 독자들은 그래도 따뜻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아마도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찬바람이 불면 왠지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 연말 작은 따뜻함을 느끼고 싶을 때 이 책은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올 것 같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새로 나온 책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
고코로야 진노스케/정혜주 옮김/동양북스/1만3000원

"하기 싫은 일을 멈추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뀐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의 저자인 고코로야 진노스케는 19년간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자신과 가족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리 치료를 공부하기 시작, 결국 심리 상담사의 길을 과감히 선택한 인물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참기만 하면 자기만 손해"라고 말한다. 참는 게 미덕인 양 여기는 사회 분위기, 상명하복 문화, 눈치 보는 문화에 길들여지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일도 꾹 참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념에 반기를 들며 '인내가 인생을 망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진노스케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싫은 것', '계속 인내하는 것'을 그만둬 보라"라며 "그리고 '좋아하는 것', '더는 참지 않는 것'에 조금씩 도전을 해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설레는 인생과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어증입니다, 일하기싫어증
양경수/오우아/1만5800원

"무슨 일 하세요?""그냥 회사 다녀요." 일러스트레이터 양경수 작가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 그중에서도 일반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속 시원한 삽화로 그려냈다.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일어나기 싫어서 괴로워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을 지나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밀린 업무 때문에 야근에 돌입한다. 야근이 끝인가? 직장인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회식 자리도 있다. 상사와의 관계를 그럭저럭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서면 그제야 직장인의 24시간이 종료된다.

저자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반복되는 24시간을 재구성하며 직장인의 고투를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게 이야기한다. 회사에서 말이 잘 안 나오고 혼자 있고 싶은 직장인의 증세에 '일하기싫어증'이란 새로운 병명을 만드는가 하면, 직장상사 때문에 얻은 화병인 '상사(上司)병' 등 몸과 마음이 아픈 직장인들의 증세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내 일이 좋았던 적 언제였나. 내일이 기다려진 적 언제였나." 저자의 "그냥 회사 다녀요"라는 말은 싫어도 아파도 항상 웃는 직장인들의 웃픈 현실을 그대로 전하는 듯하다.

이재영 기자 ljy0403@

고전, 새 옷을 입다…'리커버북' 열풍

"완전히 새 책 같아요. 선물용으로 참 좋겠는데요?"

서점가가 독자들이 사랑한 스테디셀러나 인기 도서의 리커버북을 선보이며 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스24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독자들이 사랑한 책의 표지를 재해석해 새롭게 선보이는 리커버 에디션 '리멤버북'을 판매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선보인 '리멤버북'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자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한국에 알리는 시초가 된 작품이다. 1993년 출간돼 현재까지 638쇄 160여만 부의 판매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리커버 에디션 '개미'는 시각적인 재미를 위해 가상의 공간에 개미가 붙어 있거나 움직이는 모습에 홀로그램을 가미해 한정판으로서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

예스24는 현재 '개미' 외에도 '명견만리'와 '미라클 모닝'의 리커버 에디션도 판매 중이다.

리커버북은 이미 수년, 혹은 수십 년 전 출시된 책이더라도 마치 새로운 책처럼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실제로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2월 출간돼 자기계발 분야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한 '미라클 모닝'은 리커버 양장 특별판으로 제작돼 현재 종합 베스트셀러 13위로 순위권에 재진입했다.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에선 현재 4위를 기록하며 재차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선영 예스24 도서팀장은 "리커버 에디션은 명저를 소장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한정판처럼 특별한 느낌으로, 소중한 사람에게는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적합한 아이템"이라며 "'미라클 모닝'이나 '명견만리' 등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재진입 하는 등 독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알라딘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본투리드(BORN TO REA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해 '본투리드' 프로젝트 1탄 '스밀라에 눈에 대한 감각' 25주년 기념판을 시작으로 2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3탄 도미니크로로의 '심플하게 산다', 4탄 이태준의 '문장강화', 이달에는 5탄 '이갈리아의 딸들'이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교보문고도 올해 세계 고전작품에 현대적인 새로운 표지 디자인을 적용해 작품의 가치를 재해석한 '리-커버:K'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리-커버:K'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 작품들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제인 에어', '롤리타', '불안의 책', '한밤의 아이들', '위대한 개츠비' 등이다. 교보문고는 이달에도 열린책들 세계문화전집 중 도스토옙스키, 헤밍웨이, 카프카의 선집 3편이 리커버로 출간될 예정이며, 다음 달에도 추가로 리커버 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독자들이 현대적인 컬러와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서체로 고전의 아름답고 놀라운 문장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리-커버:K'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로 선보일 세계적인 고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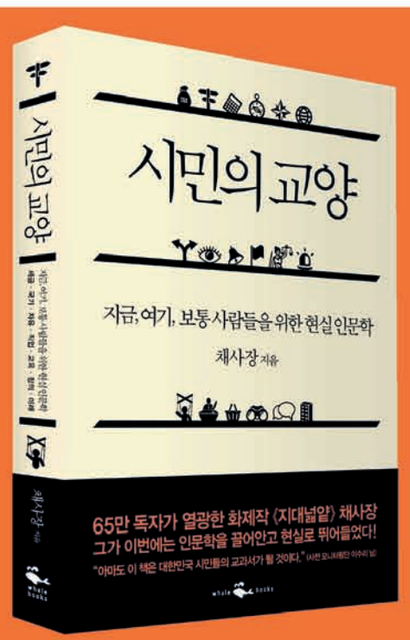
이재영 기자 ljy0403@





교보문고 '리-커버:K' 프로젝트 도서와 예스24 리커버 에디션 '개미'.

방향을 잃은 한국 사회
시민은 무엇을 알고, 말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똑똑한 시민이 세상을 바로잡는다

당신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다.
어느 날 당신에게 빨간 버튼이 하나 배달되었고, 당신은 누르거나 누르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결정된다.
《시민의 교양》은 대통령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 선택을 결정할 국가의 주인을 찾아 길을 떠나며 이야기는 뻗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시대가 다양하게 부딪히는 사회 문제의 본질을 짚어본다. 자유란, 정의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지.

* *

국가란 무엇인가? 물론, 항구적인 영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정부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실체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정의가 아니다.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채사장, <시민의 교양> 중

채사장 지음 | 348쪽 | 15,000원 | 2015년 12월 whale books

날마다 '최순실 악몽'… 살얼음판 걷는 증시

삼성물산, 국민연금 커넥션 의혹
한달새 주가 20% 이상 곤두박질
'트럼프 리스크' 겹쳐 코스피 몸살
지수 3.7%↓… 外人 1.7조 순매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 증시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시가총액 최상위권 기업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에 연루되면서 지수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다. 국정공백 리스크에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까지 안고 있는 증시는 당분간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69포인트(-0.84%) 떨어진 1971.26을 기록했다. JTBC가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직전인 지난달 24일 2047.74(종가 기준)까지 올랐던 지수는 한 달 새 3.73% 하락했다.

'최순실 게이트' 한 달 숫자로 본 주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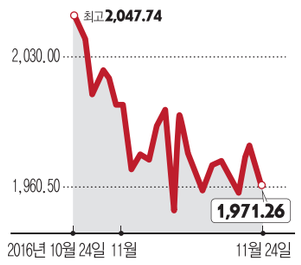
1970.26 이달 24일 코스피지수 종가. 지난달 24일 2047.74(종가 기준)까지 올랐던 지수는 3.73% 하락.

1조 7000억 외국인 이달 들어 2조원 가까이 주식 순매도 '셀 코리아' 행진.



-20% 삼성물산,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주가 곤두박질.

'최순실 게이트' 발생 후 코스피 지수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주식 1조7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셀 코리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던 외국인은 25일부터 순매도로 전환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시기와 맞물린다. 국정 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정국 불안이 경제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락장은 대형주 부진과도 무관하지 않다.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롯데, SK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극심한 부침을 겪고 있다.

이날 검찰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롯데쇼핑과 SK네트웍스의 주가는 하루 만에 각각 2.2%, 3.4% 빠졌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날까지 3일 연속 급락, 13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과 비교하면 20% 이상 곤두박질친 상태다. 다른 삼성 계열사도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물산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삼성SDS는 4.21% 급락했다. 삼성중공업(-4.05%), 삼성카드(-1.92%), 삼성SDI(-3.94%), 삼성바이오로직스(-6.33%) 등도 모두 하락 마감했다.

CJ도 최순실 게이트와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주사 CJ(-11.6%)를 비롯해 CJ CGV(-13.3%), CJ E&M(-6.6%) 등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최 씨 측과 연관된 의혹이나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 정황 등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분간 살얼음판 장세가 불가피한 이유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우리 증시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을 애써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신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악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 증권사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정치 이슈의 증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대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정경유착 문제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장사들이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대신 정권이나 실세와 뒷거래를 벌였다는 후진적 경영 행태가 노출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시총 최상위권에 포진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정권 실세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국 투자 포트폴리오 지속가능성 점수 '양'

글로벌 리서치회사 모닝스타가 한국의 투자 포트폴리오 지속가능성을 글로벌 평균 대비 낮게 평가했다. 환경 점수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분쟁 리스크도 커 총점이 낮아졌다.

24일 모닝스타는 10월 말 기준으로 세계 35개 국가 인덱스의 포트폴리오 지속가능성 점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체를 5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4분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분쟁 점수가 높고 지속가능성(ESG) 요소 중 지배구조 점수가 낮아 악영향을 미쳤다.

지속가능성 점수는 협의의 ESG와 분쟁점수로 나뉜다. ESG는 환경경영(Environmental), 사회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세 파트로 평가된다. 모닝스타가 평가한 35개 국가의 인덱스는 글로벌 시가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의 ESG 총점은 54.27로 5분위 중 3분위인 중간 수준이었다. 반면 분쟁점수는 6.63으로 5분위 중 2분위에 해당해 높았다.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의 ESG 관리 수준은 중간 정도인 데 비해 분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한국의 분쟁 점수는 아시아권 국가인 중국(4.5)과 일본(3.35)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보다 높았다.

ESG 부문별로는 환경(E) 요소가 57.95점으로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양호했다. 반면 지배구조(G) 요소 점수는 47.41로 중국(39.92), 일본(44.49)과 함께 가장 낮은 그룹으로 분류됐다.

정다운 기자 gamja@

금감원, '향응' 펀드매니저·기관 제재심 연기

채권거래 위탁 대가로 공짜여행
금융사 직원 90여명 징계 결론 못내
업계 "6~7년 전 사건 징계는 부당"
과태료 대상 기관 법적 대응 모색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향응을 주고받은 다수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결론난 것은 없고 다시 제재심위를 열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다음 일정은 아직 안 잡혔다.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제재심은 2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다다음주가 될 수 있고 그 다다음주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사 직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작년 6월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과 금융사 펀드매니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 과정에서 채권거래 위탁을 빌미로 공짜여행 등 향응을 주고받은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40여개사 직원 148명 중 1000만 원 이상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금감원 24일 제재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24일 향응 혐의 40여개 금융사 심의
↓
의견 불일치로 제재심의위원회 다시 열어 재논의 결론
↓
추후 제재심의위원회 빨라야 12월 둘째 주 (2주마다 개최) 개최예정
↓
제재심 결론 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전체회의 거쳐 확정
↓
업계 반발, 공동대응 준비 예상

검찰은 나머지 99명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90여 명을 징계 심의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금감원이 다음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과태료, 면직 등으로 징계 수위가 높은 해당자들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최종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규정 위반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위법성이 중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관에 대해서도 금전제재와 경고 조치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날 제재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던 증권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이들은 6~7년 전 사건까지 대상으로 조치하는 것에 부당함을 표명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제재 시효가 도입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법 개정 취지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6~7년 전 사건까지 징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17개 회사 중 10곳이 로펌 김앤장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윤필호·정다운 기자 beetlebum@

IPO 신라젠

바이러스 기반 항암제 개발 속도

간암 환자 대상 '펙사벡' 임상3상… 2020년 상업화



"코스닥 상장이 글로벌 회사로 가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항암제 개발 플랫폼을 통해 암 완치에 도전하겠습니다."

문은상〈사진〉 신라젠 대표이사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장 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6년 설립한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를 이용해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현재 개발 중인 '펙사벡(Pexa-Vec)'은 천연두 예방백신에 사용됐던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한 항암신약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 개시에 대한 특정임상계획평가(SPA, Special Protocol Assessment)를 승인 받았다.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 600여 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첫 환자를 등록했으며, 오는 2020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표는 "펙사벡은 시장에서 유일한 간암 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다"며 "환자를 더 오래 살게 하는 간암 신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약이 나오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신라젠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백시니아 바이러스 기반의 항암제 개발 플랫폼인 솔브(SOLVE, Selective OncoLytic Vaccinia Engineering)를 활용해 펙사벡 및 여러 항암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응증 확대 및 병용치료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sun@

미 대선후보 힐러리 "신재생에너지 비중 33% 확대"
빌 게이츠 등 '청정에너지'에 200억 달러 투자
네덜란드 2025년부터 전기차만 판매 허용 추진

봄의 미세먼지, 여름의 누진세 등 생활밀착형 문제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까지 해결해줄 '에너지 혁명'이 온다!

에너지혁명 2030



토니 세바 지음 | 박영숙 옮김 | 15,000원

한국인이 된 일본인이 말하는
"독도는 왜 한국 땅인가?"

말만으로는 나라의 땅을 지킬 수 없다.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증명하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
1500년의 역사



호사카 유지 지음 | 15,000원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신한제2호스팩과 합병 상장으로 정보 암호기술 선두기업 도약

드림시큐리티 "정보보호 철통방어 맡겨주세요"

연말정산 서비스·모바일 간편결제 보안인프라 등 포트폴리오 구성

올 매출 191억 32% 증가… 블록체인·양자암호 연구개발도 추진



정보 암호기술 전문기업 드림시큐리티가 합병 상장을 통해 기업 내용을 공개한다. 드림시큐리티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합병상장 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현황과 비전을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지난달 'M&A 중개망을 통한 특례(패스트트랙)' 합병 1호 기업으로 신한제2호스팩과 합병을 승인받았다.

이날 범진규〈사진〉 대표는 "각종 인증 솔루션부터 모바일 간편결제 보안인프라, 전자문서 보안,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휴대폰 본인확인, 스마트공인인증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며 "주요사업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998년 설립한 드림시큐리티는 암호기술 전문기업이다. 드림시큐리티의 PKI(공개키 기반구조) 방식의 암호화기술은 데이터암호화, 본인인증, 전자서명, 전자공증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행정자치부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서비스,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생체인증, 기기인증, 전자문서 보안, DB 암호화 등 보안 및 인증 제품에서 암호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보안솔루션에서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 시대도 준비하고 있다. 드림시큐리티는 1년 전부터 발전용 보일러 제어, 자동차 디지털 키, 스마트폰 기기인증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기기인증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드림시큐리티는 그동안 주력 사업분야인 전자정부, 공공시장을 비롯해 모바일 간편결제, FIDO기반의 생체인증, 사물인터넷기기인증 등 민간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방 보안산업의 기술확보 및 매출확대를 위해 방산기업을 인수했다. 국방 정보보안사업은 매년 일정한 예산이 투입되고 유지되는 특수 분야다. 회사 측은 이번 기업인수 효과로 안정적인 매출 및 기업 가치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드림시큐리티는 매출 144억 원과 영업이익 21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91억 원, 영업이익은 95.2% 증가한 4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상장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PKI 글로벌센터, 블록체인, 양자암호 등 신규 암호기술 및 핵심인력 확보를 위한 암호리서치센터 설립 등 계속적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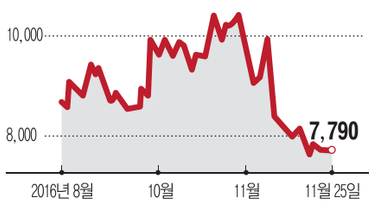
권태성 기자 tskwon@

에스에너지, 사이판에 100kW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2014년 세계 최초 UL 인증 획득

1500V 태양광 등 해외시장 진출

에스에너지 주가 단위 : 원



태양광 중견기업 에스에너지가 사이판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실증 단지를 구축한다.

에스에너지가 이달 안으로 사이판에 100kW 규모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실증단지 구축을 완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완공일은 오는 28일이며, 테스트 기간은 완공 이후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1000V급 DC BUS 기반의 경제급전용 독립계통 태양광 발전 시스템 기술개발 및 100kW급 시스템 실증 과제(이하 마이크로그리드 과제)'의 일환이다. 주관기관인 에스에너지와 참여기관 윌링스(인버터), TIS(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씨엠파트너(에너지저장장치, ESS),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대학교 박민원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에스에너지는 사이판 현지 파트너인 P&A Corporation과 전력회사 CUC(Commonwealth Utilities Corp.)로부터 각각 부지 제공 및 시스템 설비 구축 허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P&A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수급하는 전기료를 실증단지에 대한 품질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병만 에스에너지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이판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제 수행에 머물지 않고 지속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정부 주도 과제인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사이판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에너지는 2014년 마이크로그리드 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돼 1500V 태양광 모듈 개발을 진행, 세계 최초 UL 인증과 국내 최초 KS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미주 EPC 업체에 해당 모듈을 공급해 지난해부터 약 530억 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했다. 에스에너지는 이번 프로젝트 수행 레퍼런스로 1500V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로 본격적인 시장 다변화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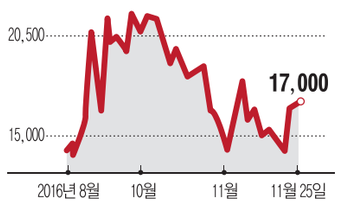
케이피엠테크 투자 美 엠마우스 'SCD' 유럽 임상검증 신청 완료

〈겸상적혈구빈혈증〉

신약 2019년부터 본격 판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기대

케이피엠테크 주가 단위 : 원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엠테크는 25일 상호투자 및 협력관계사인 미국 엠마우스라이프사이언스(이하 엠마우스)가 개발한 겸상적혈구빈혈증(SCD) 치료 신약의 유럽의약품청(EMA)에 소아 대상 임상검증계획(PIP)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MA 소아임상검증계획 신청은 신약 판매 허가 절차에 앞서 소아 사용을 허가받기 위해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EMA에서 SCD 신약에 대한 희귀의약품을 승인받은 바 있다.

소아임상검증계획이 완료되면 유럽 시장에서 SCD 치료제 신약을 2~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케이피엠테크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SCD 치료제가 없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유럽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엠마우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중순 본격적인 EMA 신약 판매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2019년에는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엠마우스는 이미 영국에서 SCD 치료제 신약에 대한 조기판매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으로 승인이 완료돼 EMA 판매 허가 전 마케팅이 가능한 상태다. 현재 심사 중에 있는 프랑스를 비롯해 EU 내 다른 국가에도 신청을 확대해 오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엠마우스 SCD 치료제에 대한 마케팅 및 판매는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의약품 판매법인 마이투마로우즈(myTomorrows)사가 맡고 있다.

케이피엠테크 관계자는 "엠마우스는 EMA에서 통합절차(CP)를 통해 EU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단일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론칭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미국과 더불어 10억 달러 규모의 유럽 시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젬백스테크놀러지 주가 단위 : 원



"주주가치 제고·지배구조 강화"

젬백스, 젬백스테크 지분 매수

코스닥 상장사 젬백스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인 젬백스앤카엘이 10만 주 규모의 젬백스테크놀러지 보통주 장내매수를 통해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젬백스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인 젬백스앤카엘은 젬백스테크놀러지의 보통주 11만4219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젬백스앤카엘의 보유지분은 기존 463만176주(16.94%)에서 474만4395주(17.32%)로 증가했다.

젬백스앤카엘 관계자는 "이번 젬백스테크놀러지 보통주 대량 매입은 젬백스테크놀러지의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와 함께 이번 매입을 통해 보유지분을 늘려 안정적인 지배구도를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운 젬백스테크놀러지 대표는 "기존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지속함과 동시에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회사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젬백스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인 젬백스앤카엘은 23일 김상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주주가치 견인 및 책임 경영을 위해 젬백스앤카엘 주식 1만1000주를 장내 매수한 바 있다.

김상재 젬백스앤카엘 대표는 "최근 금리인상, 국내정세 등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한 젬백스앤카엘 주주의 우려 확산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 자사주 매입은 당사의 미래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한 기업의 책임경영과 회사 성장에 대한 의지"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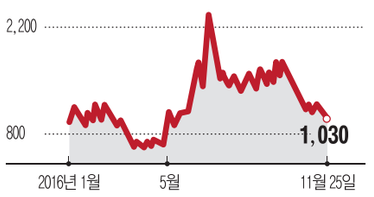
권태성 기자 tskwon@

이효리 손잡은 키위미디어그룹 "판 엔터 시장 개척"

200여명 K팝 스타 배출 김형석 회장

정철웅·박칼린 등 국내 최고 멤버 포진

키위미디어그룹 주가 단위 : 원



키위미디어그룹이 가수 이효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며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키위미디어그룹에 따르면 이효리는 2013년 정규 앨범 발표 이후 3년간 휴식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음악 활동에 나선다. 1998년 걸그룹 핑클로 데뷔한 이효리는 1세대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왔다. 섹시한 매력을 바탕으로 솔로 가수로 존재감을 보여줬고,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또 환경 문제, 유기견 보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영향력 있는 소셜테이너 역할에도 충실했다. 이효리는 최근 엄정화의 신곡 피처링 녹음을 마쳤으며 전인권, 이승환과 함께 '길가에 버려지다' 음원 작업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앨범은 '텐미닛'의 김도현 작곡가와 키위미디어그룹 김형석 회장과 함께 작업한다. 이효리가 작사, 작곡 등 공동 프로듀서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앨범 활동과 병행해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및 동물 보호 운동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캠페인도 지속할 계획이다.

코스피 상장사인 키위미디어그룹은 음악뿐 아니라 영화와 공연, 콘텐츠 개발, 브랜드 마케팅에서 다각도로 판로를 개척 중이다. 200여 명의 K팝 스타 배출을 주도한 김형석 회장을 비롯해 18년간 안정적 경영 능력과 국내 최고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해 온 정철웅 대표가 포진했다.

또, 영화 '터널'의 제작자이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무한상사'에도 참여했던 장원석 PD, 박칼린 종합예술 감독 등 엔터 분야의 국내 최고 멤버들이 모였다. 최근에는 조진웅, 이제훈, 이하늬 등이 소속된 사람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해 인프라를 확보하기도 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중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까지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sun@

공장 부지 매각 KGP, 장기차입금 전액 상환

자금 140억 확보 드론 사업 박차

산업용지 제조기업 KGP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차입금 전액을 상환하고 드론 통신중계기 전문기업을 인수해 본격적인 신규사업 진출에 나선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KGP는 23일 기타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전 최대주주인 국일제지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181억7000만 원 전액을 조기 상환했다. 기존 차입금 만기일은 2019년 12월 31일이며, 장기차입금 잔액은 0원이다.

이번 장기차입금 전액 상환은 신규 사업 추진에 앞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진행됐으며, 상환에 필요한 자금은 최근 진행된 15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보유 중이던 부동산 매각을 통해 조달됐다.

KGP는 이날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KGP 공장 부지 일부를 182억 원에 국일제지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매대금 중 14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나머지 40억 원은 장기차입금에서 상계했다.

KGP 관계자는 "이번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자본잠식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3분기 말 기준 남아 있는 차입금은 단기차입금 약 5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현금이 확보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된 만큼 준비 중인 신규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KGP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통신중계기 전문기업 알에프윈도우 지분 45.9%를 약 67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알에프윈도우는 드론을 활용한 통신중계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현재 30여 개의 전파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로봇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람 기자 hura@

네이처셀, 알츠하이머 신약 상업임상 美 FDA 승인

한국에서 제조한 줄기세포로 미국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시험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공식 승인 받았다.

첨단 바이오기업 네이처셀은 지난 10월 21일 신청한 아스트로스템의 알츠하이머 치매 상업임상 1, 2상 계획이 미 FDA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아스트로스템은 환자 자신의 복부피하조직으로부터 지방을 10g 정도 채취해 순수한 줄기세포만을 분리 배양한 후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후 환자의 정맥 내로 반복 투여하는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다.

앞서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라정찬 박사팀과 세계적인 뇌연구 분야 석학인 서유헌 교수팀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안전성과 효능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해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

줄기세포를 젊게 배양하는 기술, 작은 크기로 배양하는 기술, 완제품 내 줄기세포가 7일간 90% 이상 생존하는 기술, 암세포를 억제하는 줄기세포 배양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정맥 내 반복 투여를 통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임상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승인된 임상시험의약품 제조는 알바이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에서 맡게 된다. 제조를 맡은 바이오스타기술원은 10년 이상 치매 정복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성시종 기자 ssj@

다시
처음부터
그랜저를 바꾸다.

Grandeur



HYUNDAI

blue 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혜택 : 블루점검 케어서비스/긴급출동/블루포인트/견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그랜저 가솔린3.0(19") 복합 9.9km/ℓ(도심: 8.6km/ℓ, 고속도로:12.3km/ℓ) I CO2배출량: 171g/km I 배기량: 2,999cc I 공차중량: 1,640kg I 8단 자동변속기(4등급) ▶ 그랜저 가솔린3.0(18") 복합10.1km/ℓ(도심: 8.7km/ℓ, 고속도로:12.5km/ℓ) I CO2배출량: 168g/km I 배기량: 2,999cc I 공차중량: 1,630kg I 8단 자동변속기(4등급) ▶ 그랜저 가솔린2.4(19") 복합10.8km/ℓ(도심: 9.6km/ℓ, 고속도로:13.0km/ℓ) I CO2배출량: 155g/km I 배기량: 2,359cc I 공차중량: 1,590kg I 6단 자동변속기(4등급) ▶ 그랜저 가솔린2.4(18") 복합11.0km/ℓ(도심: 9.7km/ℓ, 고속도로:13.3km/ℓ) I CO2배출량: 153g/km I 배기량: 2,359cc I 공차중량: 1,570kg I 6단 자동변속기(4등급) ▶ 그랜저 가솔린2.4(17") 복합11.2km/ℓ(도심: 9.8km/ℓ, 고속도로:13.6km/ℓ) I CO2배출량: 150g/km I 배기량: 2,359cc I 공차중량: 1,550kg I 6단 자동변속기(4등급) ▶ 그랜저 디젤2.2(19") 복합14.1km/ℓ(도심:12.5km/ℓ, 고속도로:16.5km/ℓ) I CO2배출량: 135g/km I 배기량: 2,199cc I 공차중량: 1,705kg I 8단 자동변속기(2등급) ▶ 그랜저 디젤2.2(18") 복합14.3km/ℓ(도심:12.7km/ℓ, 고속도로:16.8km/ℓ) I CO2배출량: 133g/km I 배기량: 2,199cc I 공차중량: 1,685kg I 8단 자동변속기(2등급) ▶ 그랜저 디젤2.2(17") 복합14.8km/ℓ(도심:13.1km/ℓ, 고속도로:17.5km/ℓ) I CO2배출량: 128g/km I 배기량: 2,199cc I 공차중량: 1,675kg I 8단 자동변속기(2등급) ▶ 그랜저 LPI 3.0(18") 복합7.4km/ℓ(도심: 6.4km/ℓ, 고속도로: 9.0km/ℓ) I CO2배출량: 180g/km I 배기량: 2,999cc I 공차중량: 1,665kg I 6단 자동변속기(5등급) ▶ 그랜저 LPI 3.0(17") 복합 7.6km/ℓ(도심: 6.6km/ℓ, 고속도로: 9.4km/ℓ) I CO2배출량: 174g/km I 배기량: 2,999cc I 공차중량: 1,630kg I 6단 자동변속기(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행거리는 운전자의 습관과 도로 상태, 외부 온도 및 공조시스템 사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